

# Contents

KYOBO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발간사	02
사진으로 보는 캠프	04
2008 더불어 행복하기 캠프 개요	10
따뜻한 글 모음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 숲&amp;하나되기</li> <li>● ● ● 아름다운 홈스테이</li> </ul> 장봉혜림원 / 세하의집 / 동그라미재활원 / 동백원 늘사랑의집 / 애명복지촌 / 거제도애광원	
캠프 만족도 조사	103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소개	104
부록 : 캠프 동영상 CD	

| 발간사 |



더.불.어. 살아가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나눔의 기쁨을 배웠기를 기대합니다.”

■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의하면 테레사 수녀처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착해지는 것은 물론, 우리 몸까지도 영향을 받아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물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눔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올 여름 전국에서 이 ‘마더 테레사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더불어 행복하기’라는 아주 특별한 자원봉사 캠프를 통해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장애인이라면 무조건 멀리하던 청소년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한 번도 외출을 해 본적 없는 장애인이 바닷가에서 해양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퇴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숲 생태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더불어 행복하기’ 캠프가 있었습니다. **본 캠프는 여름방학 기간 중 2박 3일간 장애인과 함께 숲체험, 장애인 복지 시설 입소 등의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교보생명과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5년 시작 당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던 캠프가 어느덧 4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캠프에 참여했던 청소년은 대학생이 되어 올해 캠프에 스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캠프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있어 여름은 가장 기다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새롭고 의미 있는 캠프를 만들고자 관련 시설 및 기관, 단체, 후원 관계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519명의 초·중·고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414명의 시각 및 정신지체장애인 그리고 300명의 스텝 등 총 1,233명이 참여한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국 8개 장애인 시설 및 비영리 기관에서 캠프에 함께한 청소년과 장애인, 스텝은 이번 캠프를 통해 모두가 아름답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약간은 어색하고 불편하게 여겼지만 2박 3일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뒤에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모아 이 소감문집에 담았습니다. 올 여름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여름 햇살만큼이나 빛났던 추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나눔의 기쁨을 배웠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하기 캠프가 우리 사회에 봉사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길 바랍니다.

교보생명과 함께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이 풍 호*

| 사진으로 보는 캠프 |

# 2008 '더불어 행복하기' 순간순간

찰칵!  
캠프의 행복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가슴 깊이 받았던 감동,  
함께 나누고픈 추억...  
모두 이 한장의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 뽕 & 하나 되기



## 주 안 원 만 년



| 사진으로 보는 캠프 |

# 세하의 집



# 동그라미재활원



# 동백원



| 사진으로 보는 캠프 |



애명복지촌



부모사랑의집



겨제도애광원



# 더.불.어. 행.복.하.기. 캠프. 개요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2008 '더불어 행복하기'**는 자연 속에서 청소년과 장애인 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 행복하기' 자원봉사 캠프는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단체 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캠프 슬로건 | 장애인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교보생명과 더불어
- | 캠프 기간 | 2008년 7월 21일 ~ 8월 14일 총 19회의 2박 3일 캠프 운영
- | 캠프운영기관 | 숲생태지도자협회, 장봉혜림원, 세하의집, 늘사랑의집, 동그라미재활원, 동백원, 애명복지촌, 거제도애광원
- | 주 최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 후 원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 | 캠프 내용 |

구 분	장 소	일정 (차수)	대상 (차수별)	주요내용
숲 & 하나되기	안성자연학교	1차 : 7.28~30	중고생 25명	시각장애인과 함께 숲체험 캠프
		2차 : 7.30~8.1		
		3차 : 8.04~06		
		4차 : 8.06~08	초등학생 50명	환경 숲 캠프
		5차 : 8.11~13		
아름다운 휴스테이	장봉혜림원	1차 : 8.04~06	중고생 30명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캠프
		2차 : 8.12~14		
	세하의집	1차 : 8.06~08	중고생 25명	
		2차 : 8.06~08		
	늘사랑의집	1차 : 7.21~23	중고생 20명	
		2차 : 7.28~30		
	동그라미재활원	1차 : 8.04~06	중고생 25명	
		2차 : 8.11~13		
	동백원	1차 : 7.28~30	중고생 20명	
		2차 : 8.11~13		
	애명복지촌	1차 : 8.01~03	중고생 25명	
		2차 : 8.08~10		
거제도애광원	1차 : 7.23~25	중고생 30명		
	2차 : 8.06~08			

KYOBO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 ● 따뜻한 글 모음

## 숲 & 하나되기

### 숲&하나되기 캠프란?

할아버지, 할머니로 구성된 숲해설가로부터 숲의 신비와 나무, 꽃, 곤충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시각장애청소년과 청소년자원봉사자가 서로 도와가며 숲을 체험하는 캠프이다

### 주요프로그램

- ◎ 오감활동 - 온몸을 이용하여 곤충, 나무, 흙 등을 체험하는 숲해설 프로그램
- ◎ 점자배우기 - 시각장애인의 언어인 점자를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 ◎ 마음나누기 - 조별로 협동하여 장기자랑 및 연극 발표
- ◎ 봉사활동 - 천연비누를 만들어 노인복지시설 방문 자원봉사

| 따뜻한 글모음 | 숲&하나되기



## 숲 하나되기 캠프를 다녀와서

한 지원  
(갈외중 3학년)

**평소에** 한창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우리 반 게시판에 캠프홍보물이 붙어있었다. 담임선생님의 강요 때문이었을까? 호기심도 생기고 마침 봉사시간도 부족한 친구와 같이 '숲 하나 되기 캠프'를 신청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캠프 날이 오고, 나는 엄마와 함께 교보빌딩에 가서 차를 탔다. 같은 학교인 친구들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캠프장으로 가는 버스는 나에게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캠프장에 가는 길은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관계로 보건소에 내려서 안대를 끼고 시각장애인 체험을 했다. 조금 걷기만 하는데도 앞이 안보이니까 넘어질 것 같았고, 한발자국 떼기가 정말 무서웠다.

이윽고 캠프장에 도착하니 내 파트너가 있었다. 이름은 송지후이고 14살 이라고 했다. 지후는 날 만나자마자 “언니 이름이 뭐야? 전화번호는 뭐야?”라고 물어봤다. 지후는 앞을 조금 볼 수 있었고 글씨는 15p부터 읽을 수 있다고 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나서 조 구호와 깃발을 만들었다. 나와 지후는 2조였고 내가 무궁화를 추천한 까닭에 우리는 조이름을 무궁화로 짓고 깃발이랑 구호도 정했다. 식사시간이 오고 우리는 밥을

받았다. 지후는 앞이 보이지만 움직이는 게 귀찮았는지 처음에는 내가 식판 두개를 들고 밥을 받아줬다. 하지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지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만 나에게 시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앞이 잘 안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전맹인 친구들도 혼자 하는 일들을 계속 나에게 시키고 천연 염색을 할 때도 하기 싫다고 손에 잡아보지도 않는 그런 지후를 보면서 솔직히 존화가 났다. 하지만 웬지 그런 지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반성됐다. 그동안 덩다고 짜증내며 가족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서 나는 가만히 있었던 일, 친구들이 신경 써서 해준 일도 싫다며 화낸 일들이 생각나면서 캠프를 오기 전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저녁에는** 점자를 배웠다. 매일 엘리베이터에서만 스쳐지나가던 그런 점자들을 배워보니 생각보다 엄청 어려웠다. 읽기 위해서는 점자를 반대로 찍어야 했다. 이 어려운 점자를 빨리 읽는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혼자여서 재미없었던 아침과는 달리 아는 언니들도 생기고 친구들도 생겨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재미있어졌다.

**이튿날 아침엔** 일찍 일어나서 빨리 씻고 나왔더니 산이라 그런지 안개가 예쁘게 끼었고, 그곳에 있는 강아지 코봉이도 너무 귀여웠다. 그리고 모두들 모여서 산책을 했는데, 조금 걷고 다시 돌아와서 옥수수를 따다. 친가도 외가도 시골이 아닌지라 이렇게 자연 속에서 옥수수를 따보는 일도 없었는데, 벌레가 많아서 징그러웠지만 직접 가지를 잡고 옥수수를 툭 부러트려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옥수수는 저녁에 구워 먹는다고 하고 아침을 먹었다. 이곳의 식사는 다 채식인 것 같았다.

매일 패스트푸드에 고기만 먹고 야채와 과일은 잘 먹지도 않던 나였는데, 여기는 고기가 없어서 처음에는 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야채를 안 먹고 다른 것들만 골라먹다 보니 점점 갈수록 허기가져서 나중엔 언제 그랬냐는 듯 맛있게 먹었다.



| 따뜻한 글모음 | 숲&하나되기

평소 집중력이 안 좋은 나는 앉아서 설명만 듣다 보니까 지루하고 잠도 왔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물놀이를 했다. 서로서로 물도 뿌리고 빠트리기도 하고 장난도 치다가 다 젖은 옷이 말라간다고 생각할 때쯤 대나무물총을 만들어서 다시 다 젖어버렸다. 물놀이 후 씻고 저녁에 조별로 장기자랑 할 것을 연습했다. 우리 2조는 연극을 하기로 했다. 장애인 친구들이 역할을 맡고, 비장애인 친구들이 성우를 했다. 나는 오옴맨 목소리를 아주 리얼하게 연기했다. 소품도 만들고 한 번씩 맞춰보니 캠프파이어 시간이 다 되었다. 처음부터 조별 장기자랑을 했다. 평소 승부욕이 많은 나는 우리조가 1등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아쉽게 하지 못했다. 1등을 못했다는 슬픔도 잠시, 캠프파이어를 만들고 폭죽놀이를 하면서 각자 스파클라를 하나씩 들었다. 방학식날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 이후 오랜만에 보는 폭죽이었다.

폭죽놀이도 끝이 나고 캠프파이어의 불이 사그라질 때쯤 옥수수를 하나씩 가져와서 나뭇가지에 꽂아 불에 구웠다. 처음 불앞에서 직접 옥수수를 구워보니 정말 뜨겁고 매운 연기가 났다. 옥수수가 다 익고, 군옥수수를 먹다가 손에 묻은 시키면 것들이 묻어났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친구들에게 검은 숯을 묻히기 시작했다. 도망 다니고 묻히려가고 하다 보니 우리 모두 다 얼굴에 숯이 묻어서 거뭇거뭇했다. 씻고 들어가서는 피곤해서였는지 금방 깊은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산책을 마치고 모두 강당에 모여서 소감문과 자연물 카드를 만들었다. 소감문을 쓰면서 만나서 친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헤어진다는 게 너무 아쉬웠다. 그 뒤 소감문을 잘 쓴 친구들의 발표가 시작했다. 같은 방에서 잤던 시각장애인 언니가 발표를 했는데 비장애친구들이 장애인친구에 대한 나쁜 인식을 줄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솔직히 나도 이 캠프에 오기 전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다보니 장애인에 대한 나쁜 인식과 오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3일 동안 한 활동사진을 보니 그동안 같이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 같았고 헤어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여기서 만난 사람은 모두 2박 3일이 지나면 헤어질 친구들인데, 나를 잘 따

라주지 않았던 나의 파트너 지후에게 화내고 성질 부린 게 자꾸만 미안해졌다. 마지막 점심식사를 마치고 아쉬움에 친해졌던 언니들과 사진도 많이 찍었다. 그렇게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지후는 작은 버스를 타고 먼저 가면서 나랑 내년에 또 이 캠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처음에 아무도 모르고 쓸쓸히 가방을 들고 올 때는 캠프장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는데,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오다 보니 눈 깜짝할 새에 버스 앞에 도착했다. 그렇게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버스에 올랐다. 광화문역에 도착해서도 각자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모두 다른 길을 갔다.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까? 다음날 운동하러 가는 게 너무 적응이 안됐다. 아직도 아침산책을 하고 강아지들과 같이 놀고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했다. 왈가닥에 입버릇도 안 좋았던 내가 웬지 모르게 차분해진 것 같다고 했다. 캠프에 다녀와 보니, 부족한 나를 꼭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는 있다는 그 사실이 기뻐다. 유난히 벌레와 개구리를 무서워하던 나에게 벌레와 개구리가 많은 그곳은 공포 그 자체였지만, 삭막한 일상생활로 돌아오니 그 때의 벌레와 개구리들조차 벌써 그림기만 하다.



| 따뜻한 글모음 | 숲&하나되기



## 장애인 친구들과 숲으로.....

백종화  
(홍천고 1학년)

**고등학생**은 방학에도 학교를 가기 때문에 맘대로 움직일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캠프를 가기 전부터 부모님이 보낸 수많은 캠프와 공부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다. 그때 어머니께 들은 소식하나. 사람들과 함께 휴양림으로 쉬러간다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얼마나 즐거웠던지 캠프 날만 기다렸던 것 같다. 그렇게 즐겁게 떠난 캠프 당일. '이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또 자원봉사 캠프에 온 것 같은데?' 편안히 휴식을 취하려했던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왕 온 자원봉사캠프이니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나의 짝꿍이 된 친구는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직도 초등학생이었다. 모두들 초등학생으로 대해줬고 자신도 그렇게 대해주는 게 좋다는 것처럼 항상 맑게 웃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어른으로 대접해주자고 생각했다.

**숲&하나되기 캠프**에서 오감체험을 했다. 첫 번째 오감체험인 흙과 분해를 배우면서 꽤나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흙에 관한 건 옛날에 다 배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분해중인 나무도 만져보았고 흙으로 채워진 유리박스도 보았다. 두 번째 오감체험인 소리는 정말 재미있었다. 특히 두꺼비를 닮은 악기에서 나는 소리는 정말로 두꺼비 소리와 닮았다. 세 번째 오감활동인 음식의 맛에서는 해바라기 씨와 잣 그리고 호두를 먹었다. 잣은 계속 받아먹었다. 아직도 그 때의 잣을 생각하면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 같다. 내 짝꿍도 여기서 토마토나 수박을 많이 먹어서인지 기분이 좋아보였다. 그리고 네 번째 오감활동인 곤충과 다섯 번째 활동인 친환경 세제 만들기도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오감활동을 끝내고 대나무 물총을 만든 후 개울에서 신나게 놀았던 일은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흠뻑 젖어버린 옷을 갈아입고 캠프파이어 때 할 장기자랑을 연습하였다. 드디어 캠프파이어 시간이 다가왔고 우리는 차마 그냥 나갈 수 없어서 머리에 텔레토비의 상징인 안테나를 만들어서 나갔다. 캠프파이어는 어느 캠프에서나 클라이맥스다. 항상 캠프파이어 때는 모두가 즐겁고 신나 보인다. 장애인 친구들도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별 장기자랑 시간이 오고야말았다. 우리 조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해설자 역할이었다. 대본을 읽어가는 도중에 눈에 연기가 들어가서 잘못 읽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우리들로서는 꽤나 잘한 연극이었다. 캠프파이어가 끝난 뒤 옥수수도 구워먹고 다들 신나게 놀았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일어나서 창문을 보니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았다. 우리들은 고대하던 숲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숲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름다운 형상의 거미줄을 보았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숲을 걷느라 정작 말고 싶었던 숲의 향기는 맡을 시간도 없었다. 그래도 초록색을 많이 보아서 그런지 눈이 조금 맑아진 것 같다. 숲에서 돌아온 뒤 다들 강당에 모여 퇴소식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저때 정말 재미있었는데, 나중에 또 오자는 말들을 하였다. 그리고 점수판을 보니 우리 조는 2등. 아쉬웠다. 상품으로 받은 양말을 소중히 꺼안고 점심 식사 후 장애인 친구들과 헤어졌다. 약간 섭섭하면서 친구들이 날 기억해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캠프를 간지 꽤 되었다. 홈페이지에서 소감문 콘테스트를 한다는 걸 보고 친구들과의 추억을 영원히 잊지 말자는 생각에서 이 글을 썼다. 난 이 캠프를 잊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로도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다. 공부만으로 살아온 내게 가슴속 깊이 무언가가 생겨난 것 같다. 캠프 동안에는 재미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억 속 남아 있는 모습은 신나게 웃고 있는 모습만이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준 친구들을 통해 한층 더 어른으로 써 성장한 것 같다.

| 따뜻한 글모음 | 숲&하나되기



## 새로운 깨달음

이슬비  
(고양중 1학년)

"교보생명 주최 숲&하나되기 캠프? 이게 뭐지?" 중학생이 되어서 처음 보는 봉사체 험 공고문이었다.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하니깐 방학인데 놀아야 된다, 2학기 공부하기도 바쁘다, 봉사활동은 시간만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 앞 동사무소 가서 쓰레기 주우면 된다는 등, 모두 거절을 하였다. 할 수 없이 난 홀로 신청을 하였다. 전국에서도 몇 명 뽑지 않았기에 난 혼신을 다해 글을 썼다. 그리고 제발 뽑히길 바랐다. 사실 난 이런 글을 뽑혀서 당첨된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웬일인지? 당첨이 된 것이다. 난 너무 기뻐서 이번에 기회 잘 잡은 거 꼭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가기 전** 여러 번 문자가 왔었는데, 문자가 올 때마다 '정말 내가 된 것이 맞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설레고 기뻐다. 준비물도 수련회 가는 것 같이 잔뜩 싸 가지는 않았다. 그냥 옷 2~3벌만 간단히 가지고 갔다. 경기도에 살아서 교보생명까지 가는데 지하철로 1시간이 걸렸기에 엄마, 오빠는 나를 위해 정말 일찍 일어났다. 사실 거기에는 내가 아는 친구들 한 명도 없고 서울, 경기 지역의 친구들이다. 처음 보는 친구들을 홀로 마주

쳐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도 약간 들었지만 다들 나 같이 처음이라는 생각에 안도를 하며 도착했다. 친절하게 생기신 지도자분이 관광차 앞에서 도착하는 친구들마다 출석체크를 하고 있었다. 차에 탔을 때는 몇몇 사람들이 어색하게 각자 혼자 버스 구석에서 밖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내 옆 칸엔 어떤 언니같이 생긴 분이 있었는데 말을 걸고 싶었지만 처음이라 나도 껏꿏이 앉아서 밖을 바라보았다. 버스는 서울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보다. 깨어나 보니 벌써 비포장도로에서 숲이 우거진 곳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 그때 안내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시더니 그 종이와 함께 설명을 해주셨다. 아마도 우리는 이번에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다. 종이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의와 주의사항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지켜야할 사항이 정말 많았다. 내 주변에는 시각장애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처음이라서 실수라도 하지 않을지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였다.



**차에서** 이미 짝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더 많다고 해서 그 캠프 때 최연소 나이인 중학교 1학년들은 2명에서 장애인들을 돌본다고 하셨다. 그래도 두 명이니 부담감은 조금 줄어들었다. 유진이라는 친구와 함께 착하고 듄직하게 생긴 허임범이라는 친구의 짝이 되었다. 임범이와 캠프장으로 같이 손을 잡고 갔었는데 커서 성악가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임범이는 자기의 정확한 꿈이 있었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며 내게 유명한 성악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 임범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확한 꿈도 없이 그저 외교관만 되고 싶었던 내가 너무 위축되어보였다. 나보다 어린 나이인

임범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해 보였다. 조를 짜게 되었는데, 임범이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았다. 임범이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실 난 시각장애인이라도 조



따뜻한 글모음 | 숲&하나되기

금도 보이지 않은 것은 설마 아닐 거라고 빛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몇 친구들은 아예 앞을 볼 수 없었다. 오전, 오후 늘 어둠속에서 듣기만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째 날은** 모두들 다 처음이고 어색해서 그냥 서로 내일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하거나 이야기를 피우는 시간이었다. 특히 조별로 활동 하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조별 활동도 중요하였지만 무엇보다 임범이와 잘 지내야 할 것 같았다. 밤에는 조별 활동을 하면서 서로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임범이가 우리랑 같은 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진짜로 내가 아는 초등학교 5학년 남동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앞만 안 보일 뿐 임범이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내 남동생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는데 임범이는 배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양손에 두 개의 급식판을 쥐고선 팔을 후들후들 거리며 급식을 받았었다. 그 땀 힘들고 짜증이 났었다.

**둘째 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장애인친구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붙어 다니고 챙겨주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다. 난 친구들이랑 같이 놀듯이 옆에서 이야기 하



고 그러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며다녔는데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다. 숲 체험 프로그램을 하며 물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임범이에게서 손을 떼고 손을 공중에 휘저으며 이야기를 열심히 했다. 하지만, 임범이가 나 때문에 발을 헛디뎠어서 무릎이 빨개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너무 미안했다. 사실 내가 평소애 울음이 많은 편이다. 임범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울고 싶었지만 누나라서 참았다. 그리고 더 다행인건 임범이가 너그럽게 화를 내지도 않고 괜찮다고 말을 건넨 것이었다.

정말 울기도 잘하고 신경질도 잘 내는 나로선 너무 고마웠다. 또 치자염색시간에는 내 옷을 잘 만들어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임범이를 가만히 놔두고, 내 것만 열심히 단추를 끼워 넣었다. 역시 이기적인 나였다. 그래도 임범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다렸다. 하지만 옷은 잘 되지도 않았다. 역시 마음부터가 나쁜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 여기서 난 또 임범이에게 한 가지를 배웠다.

**캠프에** 가면 빠지지 않는 양념이 있다. 바로 레크리에이션이다. 학교에서처럼 하고 싶은 친구들만 하고 박수쳐주고 끝내면 될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모두 다 같이 준

비하며 즐기는 거란다. 사실 난 말은 잘 하지만 끼를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할 때 별로였다. 우리 3조는 우여곡절 끝에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다. 우리 조에는 연령별로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서 준비하기가 힘들었다. 우리 조의 장기자랑은 엄연히 말하자면 누가 봐도 망쳤다. 연극 대사도 잘 안 외웠고, 중간에 팀원이 자기소개를 막 하겠다고 하는 등 우리 말고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래도 준비하는 내내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했기에 후회는 없다.

**마지막 날이다.** 첫째 날과 느낌이 다르다. 웬지 우울함과 슬픔, 공허함이 몰려온다. 왜 이런지 몰랐다. 오늘은 간단히 숲 체험을 하고 감상문을 쓰곤 점심이 끝이다. 그렇다. 헤어지는 시간이다. 왜 이렇게 슬프지? 거짓말이 아닌 정말로 슬펐다. 숲 체험을 할 때도 임범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임범이와 이야기 나누는 것은 정말 재미있었다. 그런데 아마 임범이는 모를 꺼다. 내 얼굴이 슬픈 얼굴이란 걸. 임범이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웃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나도 임범이에게 좋은 누나라고 남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잘 해주었다. 그런데도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도 시간은 언제나 온다. 임범이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하며 버스위로 올라오게 해 주었다. 임범이가 "누나도 잘 가"라는 말을 특 던졌을 때 지난 2일이 사진처럼 지나쳐 갔다.



**첫째 날** 급식을 받을 때 짜증이 났었다고 했는데 그때 그랬었다. 그런 활동을 처음해 보고 뜨거운 걸 데어가면서까지 하는 게 싫었다. 그런데 이제 알겠다. 다른 이를 좀 더 배려하기 위해 온 캠프니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그곳은 숲이라서 핸드폰이 잘 안 터지는 곳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도 잘 보내지지 않고 모기도 많



### | 따뜻한 글모음 | 숲&하나되기

이 물려서 싫었지만 그 곳에서만 느낀 자연의 맛이 그립다. 10시쯤에 먹는 감자도 맛있었고 밤에 몰래 돌아다니는 것도 재미있었다. 봉사시간? 선배들이 시간만 채우는 것을 보며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봉사의 처음부터 이런 맛을 느끼게 되어 앞으로 마음으로 봉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난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바로 진심한 마음이다. 겉으로만 잘해줄려 했던 걸 임범이도 알 것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임범이는 너그럽게 봐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믿음, 사랑, 협동 정신..... 어디서나 마음대로 배울 수 없는, 도덕시간에도 배울 수 없는 것 들을 말이다. 믿음은 짝과 내가 서로 믿기에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랑은 서로 사랑하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협

동은 우리 조가 잘 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도왔다는 것만으로도 난 만족한다. 사실 하나가 더 있다. 자연이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 자본적은 없었다. 벌레도 천장을 기어 다니고 해서 무서웠었는데 나를 해치지는 않았다. 불편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집 밖에 나가면 불편해지기는 당연한 사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내 주위에 있었기에 많이 배우고 온 2박 3일간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임범아. 누나가 잘 못해주었지? 누나가 약간 차가운 거 네가 이해하길 바래. 그리고 꼭! 커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서 누나도 초대해 줘야해~~안녕!



## 보이지 않는 세계

송인아  
(작전여고 2학년)

**나의 일명** '숲&하나되기 프로젝트' 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반복된 일상에 힘겨워질 때쯤 학교 게시판에 걸려있던 유인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마감 당일, 왠지 초조하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다. 정말 우연처럼 '숲&하나되기' 캠프에 신청을 하였다. 솔직히 말해 다른 캠프와는 다르게 무난하고 가장 쉬워보였다. 그저 막연히 숲과 관련된 것이겠지하고 뽑힐 거란 예상도 못한 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친구 세 명 중 오로지 나만 뽑힌 것이다. 안 그래도 처음인데 혼자라니! 뭐 이런 경우가 있나싶어 입금하라는 메세지도 그저 무심코 넘기기만 했었는데 입금일이 하루가 지났을 때 뒤늦게 엄마와 동생의 권유로 입금을 하고 기다렸다. 연락이 와도 걱정이고 안와도 걱정이라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연락이 왔다. 입금확인. 원래 추천에 운이 없는 편이었는데 출발이 좋았다. 더불어 이 캠프를 꼭 알차게 끝내야겠다는 사명감도 들었다. 그러다 캠프출발일이 되었다. 아침부터 버스를 놓쳐 안절부절못하다 겨

따뜻한 글모음 | 숲&하나되기

우 9시 30분이 막 되었을 때 도착하였다. 버스에서의 첫 느낌이란, 그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내 나이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캠프라 해서 내 또래 애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중학생이 많았다. 중학생 때 뭐했나 싶기도 하고 캠프 하는 내내 그 아이들이 오히려 나이든 우리들보다도 적극적이어서 놀라기도 했다. 버스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내지를 받았을 때 알았다. 더불어 함께할 친구가 시각장애인 친구라는 걸.

**드디어** 경기도 안성에 도착. 어느 산골에 온 것 같았다. 괜히 숲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아닌 듯했다. 각자 조를 배정받고 대학생언니, 오빠들을 조장으로 구성되어 짐을 옮기고 시각장애인친구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난 3조였다. 그리고 파트너 원석이를 만났다. 원석이에 대해 묘사하자면 일단 2살 어린 중학교 3학년에 키가 186인 매우 큰 신장을 가지고 있고 말이 없고 인내심이 많다. 선생님은 원석이가 약시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원석이는 1년 전에 시력이 거의 떨어졌다고 한다. 원석이와 파트너를 하는 내내 느낀 거지만 우선 내가 부족해서 미안했고 내게 화한 번 내지 않고 기다려준 게 너무나도 고맷았다. 다들 여러 파트너를 만났지만 원석이가 내 파트너가 되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시각장애인 파트너들을 만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를 할 때부터 모든 활동을 마치고 잠을 자러 숙소로 들어갈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 우리들이 그들의 눈이 되어주는 것이다. 우리들은 매번 혼자 익숙하고, 혼자 걷고, 혼자 먹고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 함께 곁에서 도와줘야만 한다. 첫날은 시각장애인 친구들과의 만남이 처음이라 긴장감 때문에 혹시나 내가 다치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조건 원석이 옆에만 있었다. 원석이는 특히 키가 커서 걷는 중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부딪히는 일이 자주 있곤 했다. 그렇게 밥도 함께 먹고, 천연염색이란 것도 해보며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날은** 유난히 재밌는 일들이 많았다. 대나무 물총도 만들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우리3조의 조원들이 모여서 만든 연극도 하고 각자의 끼들을 맘껏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물싸움 뒤 열악했던 샤워시설로 인해 점심을 먹는 시간에 늦게 되었다. 모든 아이들은 밥을 먹으러 갔었고 나와 나머지 한명만 샤워를 급하게 끝내고 나갈려던 참이었다. 처음엔 화가 난 것 같았다. 순간 아차 싶었다. 샤워로 바빴다지만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는지. 바로 그때까지도 원석이는 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밥도 안 먹고, 그 때 느꼈

다. '아. 원석이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려왔을까.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인내심을 길러왔구나.'라고 말이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려고만 한다. 공부도 빨리빨리 단기간에 쑥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찾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빨리 끝내지 않으면 초조함에 신경질을 부리게 된다. 정말 반성해 할 문제인 것이다. 그때 난 원석이에게 물어봤다. 왜 안가고 기다렸냐고. 원석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난 괜스레 마음이 쩡했다. 그렇게 밤이 되었고 기다리던 캠프파이어가 열렸다. 까만 밤에 별밖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배경으로 연극을 끝내고 다른 시각장애인들의 공연을 보면서 정말 시각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끼와 재미와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말 놀라웠고 그러한 장애를 가지면 무조건 웬지 모를 열등감과 패배감을 안고서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의존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매사에 적극적인 그들을 보면서 도리어 내가 부끄러웠다.

**마지막 날** 각자의 파트너들에게 편지와 소감문을 제출하는 시간. 소감문을 발표하는 시간에 내가 뽀뽀 발표를 하는데 원석이와 헤어지기가 아쉽고, 고맙고 이런저런 마음에 읽는 도중에 눈시울이 붉어져 당황하였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교환하고 서로 번호를 주고받고 헤어졌다. 그 후에 집에 돌아와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비록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오염된 우리들의 세계와 달리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키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이는 걸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는 우리와 달리 보이지 않는 걸로도 자신을 멋지게 표현하는 그 아이들이 참 멋있었다. 시각장애인 친구들 내년에도 파이팅!~



| 따뜻한 글모음 | 숲&하나되기



##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준 숲 하나 되기

서민경  
(각리중 2학년)

**지하철**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면서 2박 3일 동안 펼쳐질 캠프에 대한 생각을 했다. 작년에도 숲 하나 되기 캠프를 왔었기에 이번에도 같은 캠프일줄 알았다. 작년에 갔었던 곳처럼 시설 좋고 아름다운 펜션 같은 곳을 상상하고 왔던 것이다. 하지만 도착한곳은 상상했던 곳과는 전혀 달랐다. 실망도 잠시, 우리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배웠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작년에는 내가 만들기도 다 하고 모든 것에 참견을 했지만 혼자서 하는 것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비장애인들이 그렇게 대하여 주는 것에 대해 더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인데 시각장애친구들이 그렇게 느낄 줄이야! 조금 더 그들의 의사를 물어볼 걸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 후회하지 않을 진정한 봉사를 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친구들을 기다렸다. 나의 파트너는 휠체어를 타고 있던 장슬기라는 예쁜 이름의 친구였다. 슬기는 이름에 어울리게 항상 웃고 있고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2박 3일 동안 우리 캠프에서 가장 빛났다.

### 파트너를 정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지만 험한 산길이다 보니 휠체어를 끄는 일이 좀 버겁게 느껴졌다.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내가 잘못해서 슬기가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던 차에 박다빛이라는 아이와 파트너가 되어 슬기와 안전하게 숙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어진 프로그램은 조 이름과 조 구호 정하기로 파트너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모두들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던지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 조는 어렵사리 산마루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 밥을 먹을 때 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해서 휠체어에 탄 슬기는 힘들게 밥을 먹어야 했는데 그것이 캠프 끝날 때까지 안타까웠다.



### 벌레들과의 싸움, 아니 전쟁

작년과 조금 다르게 너무 자연에 들어 와버렸다고 할까? 우리들은 모기, 나방, 나비들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난 모기에 잘 물려서 다른 아이들보다 배는 더 힘들게 모기를 쫓아야했다. 그나마 우리는 모기나 파리가 오면 잡기라도 했지만 시각장애친구들은 보이지 않으니 잡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물리고 있었다. 결국 나는 캠프가 끝날 때까지 11군데를 물려 친구들 중 최고로 많이 물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 오감활동을 하면서

작년에도 했던 활동이지만 다시 하면서도 역시 자연에 반해버렸다. 나도 모르게 숲에 빠져들었고 숲 해설도 너무 좋았다. 소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연의 소리를 좀 더 듣는 계기가 되었고, 싫어했던 곤충에 대해서 배우면서 조금 더 곤충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흙의 분해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무심코 스쳐지나갔던 부분도 다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세제도 만들고 가글도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 대나무 물총을 만들어 물놀이도 즐겼는데 우리 조에 여자가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나에게만 물총을 쏘아서 일일이 상대하기가 힘들었다. 솔직히 이번에도 물놀이를 할 줄 몰랐다. 그래서 많이 챙겨오지 않았었는데 모두가 나에게만 공격을 해서

| 따뜻한 글모음 | 숲&하나되기



온 몸이 쫄딱 젖었다. 그때엔 속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모두 나와 놀아주고 서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캠프에서 가장 좋았던 활동을 꼽으라면 나에게도 역시 물놀이가 아닐까??? 아무튼 그때에 나만 물을 쫄딱 맞아서 감기에 조금 걸렸었다.

**조별장기자랑 준비!!!**

캠프에 오면 항상 하는 캠프파이어! 그리고 서로의 특별함과 장점을 깨닫게 해주는 조별 장기자랑! 우리가 준비한 것은 올림픽기간에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T로고송이었다. 따라 부르기도 쉽고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익숙한 멜로디를 개사해서 자연에 대한 사랑, 학생의 본분,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것을 테마로 삼았다. 대학생 자원봉사자 오빠가 꼭 우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해주어서 더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었다. 기다리던 장기자랑 시간! 우리는 부끄러운 듯이 나가서 열심히 준비해온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비록 우승은 아니었지만 2등이라도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즐겨서 누구보다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 있다. 또한 달고 시원한 수박과 갓 삶은 옥수수를 간식으로 먹으면서 사진도 찍고, 서로 애기도 나누었다. 옥수수는 구워먹고 싶은 사람에게 한해 구워 먹었는데 우리 조는 전부 구워 먹었다. 잘못 구워서 탈까봐 걱정했었지만 참 맛있게 구워졌다^^

**우리 헤어지네**

즐거운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봉사를 하면서 참 열심히 했다고 자신했지만 헤어질 시간이 되니 '이번에도 부족한 점은 없었을까' 생각이 되며 걱정이 되었다. 잘 해주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을까? 했지만 슬기의 미소를 보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슬기의 예쁘고 순수한 미소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뭔가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허전하였다. 하지만 헤어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마도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남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고 난 생각했다.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꼭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고 싶었다. 결국 말하지 못했지만 이런 기분이 모두에게 벌써 전해지지 않았을까? 서로 연락처도 교환했으니 언젠가 우리는 또 만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모두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시각장애친구들은 우리와 차이가 없으니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감사한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교보생명, 숲 해설가, 대학생 자원봉사자 언니 오빠들, 시각장애 친구들 그리고 같이 봉사를 한 친구들까지 모두가 다 고맙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 따뜻한 글모음 | 숲&하나되기



## 자연과 함께한 2박 3일

김 채 현  
(홍연초 4학년)

햇빛이 짙었던 무더운 여름날. 나는 숲 하나 되기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역시 환경에 관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였고, 이번 또한 기대가 컸다. 그곳에서 조원들과 친해지는 프로그램을 하였는데, 정말로 자연과 더불어 하는 것 같았다. 역시 캠프가면 첫날은 분주하게 끝나나보다. 그 새 많은 언니들과 친해져서 서로 어울리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랑하여서 온 것 같다.

**첫날**, 우리는 여러 가지 재료로 천연비누도 만들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보여드릴 공연도 준비하였다. 둘째 날 아침, 눈을 부비며 일어났더니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원래 이런 날에는 곤충도 더 많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날씨도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연꽃마을에 가서

공연도 하고 우리가 정성 드려 만든 천연 비누도 전달하였다. 그리고 어르신들 어깨도 주물러드렸다. 문득 그분들이 가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후 몽클한 가슴을 안고 다시 캠프장으로 갔다. 자연과 놀 시간이 다시 생긴 것이다.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나니 몽클한 마음은 금세 잊어버렸다. 선생님들께 복수(?)도 하고 언니들이랑 물싸움하고. 그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 내 자신을 보니 딱 ‘물에 빠진 생쥐꼬’ 이었다. 한바탕 웃으면서 숙소로 가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감으니 마음속까지 시원하였다. 무엇인가를 ‘홀홀’ 털은 듯한…….

오감활동 6가지 중에 3가지를 하였다. 머릿속엔 ‘너무 신기하다’,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팍 찼다. 그리고 많은 것이 자연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크게 깨달았다. 셋째 날의 캠프파이어도 어떤 추억들보다 값진 추억이 되었다. 비록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날이 올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 받고도 안 줄 것 같은 나만의 옥수수 구워먹기.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두고 우리의 마지막 날은 그렇게 막이 내렸다.

**처음에** 긴장감이나 어색함이 감도는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이틀이나 지났다는 것이 신기하다. 캠프에 마지막 날이 되니 ‘별써 마지막인가? 좀 섭섭하다.’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마지막 남은 3개의 오감 활동을 끝마치고 우리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점수를 비롯해 등수를 기다렸다. “야호!” 그렇게 간절했던 우리조의 1등 정복이 이루어졌다. 2박 3일간의 짧은 캠프였지만, 자연과 더불어 즐겁고 멋진 시간이었다.



| 따뜻한 글모음 | 숲&하나되기

# 선생님 그리

## 아주 특별한 여름

숲생태지도자협회 이기정

올해 캠프는 어떤 학생들이 올까? 하는 기대도 되었지만 작년과 달리 장애인, 비장애 청소년 통합캠프와 4~6학년 아동 환경봉사캠프 2가지 운영을 맡아보니 부담도 많았다.

캠프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자원봉사 학생들과 숲해설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사전답사 및 프로그램 공유를 하였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장애인 바로 알기와 그들을 대하는 예절에 가장 중요하게 주의를 주었다.

드리어 캠프. 광화문 교보에서 아이들을 맞아 버스를 타고 오며 인솔 선생님이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에티켓 교육을 통해 시각 장애인에게 주의할 점과 무언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버스에서 하차하여 안내를 하고 시각 장애인 체험을 하면서 실제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캠프 입소식과 조구호, 깃발을 만들고, 하얀 티셔츠에 치자로 천연염색, 오감활동으로 보는 자연이 주는 이로운, 향긋한 천연비누 만들기, 자연물을 이용한 카드 만들기, 물놀이와 태너무 물총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청소년과 아동들이 재미있게 또는 신기하게 체험하고, 봉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 청소년, 아동들이 스스럼없이 손을 내밀며 친밀해지는 것을 보며, 처음에 느꼈던 부담은 사라져 버렸다. 단체 생활을 통한 협동심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된 이번 캠프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한다.

● ● ● 따뜻한 글 모음

# 아름다운 홈스테이

## 아름다운 홈스테이 캠프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그들과 함께 축구, 레프팅, 갯벌체험 등의 특별한 활동을 하며,

재미와 보람 모두를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 캠프이다

### 주요프로그램

- ◎ 자원봉사의 의미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특강
- ◎ 갯벌체험, 등반, 레프팅 등 환경체험활동
- ◎ 시각, 청각, 휠체어 타기 등 장애체험
- ◎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탐방 조별활동



| 따뜻한 글모음 | 장봉혜림원



# 믿음, 소망,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인천 장봉도 혜림원

방효식  
(인천대인고 2학년)

**2박3일** 동안 인천 장봉 혜림원으로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배워갔다. 부족하지만 혜림원 가족들께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드렸다 생각하니 기쁘고 뿌듯했다. 혜림원에 처음 갔을 때의 느낌은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곁에 있어주면서 혜림원 가족들을 위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줘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곳에서 삼촌과 이모를 처음 만나게 됐다. 캠프에 참여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처음엔 긴장이 되고 장애인과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난 혜림원과 비슷한 은혜의 집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주말마다 자원봉사활동을 해서인지 크게 긴장이 되진 않았다. 혜림원에 계신 삼촌과 이모를 만났을 때 망설이지 않고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했다. 그리고 삼촌과 이모도 나에게 웃음을 주시면서 인사를 해주셨다.

**첫날.** 1조부터 5조까지 편성되어 자원봉사자와 혜림원 가족이 함께 활동을 시작 했다. 조별로 단체 활동,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각조의 이름과 조 구호를 만들었다. 그

리고 조별 단체 게임을 했다. 삼촌과 이모도 즐거워 하셨고 많이 행복해 보였다. 물론 우리도 즐거웠고 재밌는 시간이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혜림원 가족들과 한 몸이 되서 함께 즐긴 것이 좋았고 그런 내 자신이 정말 뿌듯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가고 저녁이 되어 다시 모인 한자리. 나눔회관에서 하루 동안 함께 했던 일을 생각하며 소감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조에 대표 1명과 가족 1분씩 나와 소감발표를 시작했다. 여러 많은 소감 발표를 하고 하루가 저물어 갔다.

**다음날 아침.** 둘째 날은 조별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모두가 모여 삼겹살파티와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미션게임을 하는 날이었다. 낚시하기, 해수욕장가기, 영화보기, 실내 활동, 향초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우리 조는 해수욕장으로 가서 삼촌과 이모와 함께 수영도 하고 물장구도 쳤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삼촌과 이모가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그것을 이겨내시고 함께 즐기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아팠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서로 헤어져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앙양 울고 싶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조별 활동과 단체 활동을 함께 하면서 어색했던 것도, 쑥스러웠던 것들도 모두 사라지고 서로 많이 친해졌다. 캠프에 와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들이 자주 찾아가 놀아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줘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처음에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곁에 가면 경계하고 피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게 됐다.

우리들이 좋은 추억과 자주 찾아가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줘야 여기 계신 삼촌과 이모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서서히 활동이 끝나가 점심을 먹고 서로 함께 모여 조별 미션게임과 캠프파이어를 하러 바다로 갔다. 조금씩 해가 저물고 바다에 와서 각 조별로



| 따뜻한 글모음 | 장봉혜림원

용기종기 모여 앉아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했다.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과일과 음료수도 마시고 바다에서 함께 모여 음식을 먹으니 이것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게 되어 좋았다. 삼겹살 파티가 끝나고 조별 미션 게임을 준비 했다. 코믹 댄스, 막춤, 패션쇼, 차력쇼 등 재밌는 미션게임이 준비되어 있었다. 남자들은 한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여장을 했다. 춤추고 수박 빨리 먹기 대회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게임도 끝나고 해도 저물어 가고 서서히 어두워졌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캠프파이어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모닥불을 중심으로 각조별이 아닌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루했던 시간을 되돌려 생각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를 불렀다. 당장 내일이 되면 이제 헤어지는데 헤어진다 생각에 마음도 아프고 많이 슬펐다. 헤어지기가 싫었다. 오늘 하루 함께 하면서 즐겁고 정말 잊을 수 없는 행복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3조 '함께가조' 웃음이 없으셨던 성숙이모, 항상 웃음을 잃지 않은 효정이모, 항상 무표정이신 영근삼촌, 말이 없고 조용하셨던 나의 파트너 윤석삼촌, 수진이, 소라, 혜정이, 성원이, 지윤누나, 진쌤. 모두 소중한 한 식구.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서 행복했다. 비록 2박 3일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추억을 만든 즐거운 시간이었다.

**혜림원에** 오기 전에도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장애아와 등산, 야외활동 등을 해 왔다. 그때는 처음 해보는 경험이어서 '내가 왜 장애인이란 이

런 활동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다. 하지만 캠프에 다녀온 후로 내 자신이 변화한 것을 느꼈다. 이번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해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법률, 장애인보호법 등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솔직히 말해 장애를 가진 분들도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우



리가 소중하듯 이 분들도 소중하고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듯 이분들도 소중한 생명을 갖고 계신,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신 그런 분들이

사다.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많이 남아있다. 이 편견과 차별이 빨리 없어져 '장애인'이라는 말도 점차 없어지고 장애인이라는 호칭 대신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 이렇게 호칭을 바꿨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잊을 수 없는 추억, 다시 가고 싶은 혜림원, 또 보고 싶은 혜림원 가족분들.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소감문의 막을 내린다.



| 따뜻한 글모음 | 장봉혜림원



## 웃음을 배워 온 장봉혜림원!

원 지 연  
(계산여중 3학년)

**작년에** 친구의 소개를 받아 장봉혜림원이란 곳을 다녀왔다. 봉사보다는 친구와 놀고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러 갔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이라 그랬던지 많이 서툴렀던 것 같다. 작년에 다녀와서는 우리 조였던 거주인분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하였다. 나의 파트너까지도..... 이렇게 부족한 내가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올해 캠프는 내가 친구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같이 가게 되었다. 친구들과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장봉혜림원으로 갔다.

처음 혜림원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인사를 받아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작년에 같은 조였던 경희이모께서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이리 오라고 하셨다. 같은 파트너는 아니었지만 나를 기억해주신 이모께 너무 감사했다. 나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나서 이모 옆으로 자리 잡았다. 이모를 보는 순간 작년의 재밌고 즐거웠던 추억이 스쳐갔다. 하지만 이모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진 것 같았다. 진물이 나고 가려우셨던지 긁어서 핏자국이 많은 다리를 봤을 때 참 슬펐다. 뜻밖의 경희 이모의 환영인사에 나는 놀라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다.

도 했다.

이렇게 이모와의 만남도 잠시, 이제 조의 파트너를 선정한다고 하였다. 이미 나의 조는 나와 있었다. 그 이름도 위대한 우봉 3조!!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경희이모와 나는 또 같은 조가 되었다. 아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마음에 행복했고 편했던 것 같다. 처음 보는 거주인인 한 이모께서 나를 보며 방긋 방긋 너무 맑게 웃어주셨다.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와 같이 웃어주었다. 이게 인연이 된 건지 파트너를 정할 때 처음 보는 나에게 웃어주시던 은미이모와 짝이 되었다. 짝을 결정하고 나서 은미이모는 나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며 눈이 마주칠 때마다 방긋방긋 웃어주셨다. 처음엔 이모의 웃음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모의 웃음 때문인지 더 쉽고 빠르게 친해진 것 같았다. 이렇게 파트너를 다 정하고 조별 인사도 하였다.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우리 조는 그런대로 쉽고 빠르게 친해진 것 같았다. 다음날에 활동할 계획을 짜며 우리의 화합과 협동심을 만들게 해주었다. 이모와 삼촌께서 서투른 그림그리기와 글쓰기를 같이 도와가며 썼다. 이모와 삼촌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내일이 기대가 됐다.

**다음날** 우리 조는 배를 타고 나가 쇼핑을 하고 돌아와 음식을 만들어 먹은 다음 노래방을 가기로 하였다. 배를 타고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은미이모는 너무도 설레고 기뻐하던 것 같다. 하지만 쇼핑을 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내가 시계를 찬 것을 보고 은미이모께서도 가지고 싶으셨던 것 같다. 롯데마트를 가니 이모께서는 장난감 시계를 손에 들고 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처음 겪어보는 나는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아 이것을 사도되는지 언니, 오빠에게 물어봤다. 하지만 언니, 오빠도 어떻게 할지 몰라 일단 가져갔다 안 되면 계산대에

서 빼기로 했다. 나도 이렇게 은미이모에게 말을 해서 은미이모도 알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에게 너무나 큰 재앙이 왔다. 계산을 한 뒤 다시 장봉혜림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모께서는 그 시계와 악세사리를 사시겠다고 투정을 부리셨다. 결국 선생님께서 오셔서 은미



| 따뜻한 글모음 | 장봉혜림원



이모를 잘 달랬다. 늦게 온 우리를 찾고 기다리던 선생님  
님과 조원들께 미안했다. 이 일 때문에 은미이모는  
기분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다. 배에서 올 때도  
울면서 시계를 갖고 싶다고 하시고 집에 가겠  
다는 말을 하셨다.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것 같  
아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다.

장봉혜림원에 가서 은미이모는 레크리에이  
션 전까지 쉬셨다. 원 내 노래방에서 놀았을 때 나  
만 파트너가 없었다. 합창 연습을 할 때도 혼자 하였다.

파트너와 있다 떨어져 있다는 게 너무나도 슬펐다. 비록 이틀 동안 본 은미이모지만 이  
모가 보고 싶어졌다. 레크리에이션 가기 전 선생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은미  
이모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고 현재 살고 계시는 곳으로 가 은미이모를 모시고 함께 레  
크리에이션 하는 곳으로 갔다. 다행이 기분이 한결 괜찮으신 것 같아 나도 마음이 좋았  
다.

**마지막 날,** 역시 작별은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이렇게 많이 친해질 줄은 몰랐  
던 나에겐 섭섭함이 컸다. 하지만 다음에 또 올 것을 약속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은미이  
모도 집으로 가신다고 했다. 장봉혜림원에 계신 분 모두가 웃음을 알려 주신 분들이다.  
하지만 감사하다란 표현을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 항상 방긋방긋 나에게 웃음을 보여  
주고 깨닫게 해주신 이모와 삼촌께 너무 감사하다. 또한 전부는 아니지만 이모와 삼촌  
의 이름을 많이 외웠다. 다음에 또 오면 이모와 삼촌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겠지?



##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장봉혜림원

김민영  
(수도여고 2학년)

### 만남, 헤어짐, 그리고 또 다른 만남..

우리는 이러한 반복 속에서 때때로 작지만 큰 행복을 느끼고 뜻하지 않은 사랑을 실  
천하게 되는 것 같다. 지난해에는 가족의 권유로 혜림원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떠나  
기 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감동과 행복, 깨달음을 느끼며 돌아온 그 이후 올해,  
또다시 장봉도로 향했다. 피약별이 내리쬐는 하늘아래서의 바다냄새, 힘차게 날갯짓하  
는 갈매기들까지..... 일 년 전의 추억이 되살아나며 그저 반갑게만 느껴졌다. 가슴 한  
편에 간직해둔 혜림원에서의 추억은 일상이 힘들고 지칠 때 이따금씩 떠오르고 위안이  
되어준 고마운 곳이었고, 늘 작은 그리움이 묻어나던 곳이었다. 작년의 보람된 추억을  
되새기며 떠난 장봉도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 돌아오게 되어 너무도 기쁘  
고 행복하다.

**2박 3일이라는** 길다면 긴 그 시간이 혜림원에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홀쩍 지나갔다. 그곳에서의 추억은 올 한해의 무더운 여름날 중 가장 빛났던 순간들이

| 따뜻한 글모음 | 장봉혜림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평소에는 더불어 행복해진다는 타이틀이 막연하게만 느껴질 뿐이다.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고, 뻘뻘한 일상 속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담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마는 때도 적지 않다. 그렇게 무감각한 일상의 나를 변화시켜주는 곳이 바로 혜림원이다. 소박한 2박 3일간의 일상 속에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진다.

**작년에 이어** 내게 두 번째 추억을 안겨준 혜림원. 그래서인지 내게 혜림원은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고, 여러 삼촌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내심 너무나 반가웠다. 그렇지만 시작이 늘 새로운 것처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내게

조금은 벅찼던 것 같다. 다행히 삼촌들과 이모님들을 포함해 스텝선생님들께서 모두들 친

근하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나

또한 침체된 조 분위기를 풀어

가며 조원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

보니 삼촌들께 좀 더 잘

대해드리지 못하고 많

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 죄송하고 창피한 맘 또한

크다. 언젠가 또다시 혜림원에 가게 된다면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다가서고 싶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타고난 승부 근성으로 즐거운 활동을 만들어나간 4조 에너지이저의 조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짝꿍이었던 창남삼촌을 비롯한 우리조의 멋진 삼촌들. 형주씨, 기왕씨, 상문씨, 익선씨 그리고 매력으로 푹푹 뭉친 우리조의 조원들. 효진이, 선희, 민기, 유일한 동급 지윤이 마지막으로 언제나 열띤 응원으로 우리 조를 격려해주신 한솔쌤, 천사 같은 지은언니 모두모두 잊지 못할 거예요 ♡

이곳에서 늘 느끼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넘어서 남과 더불어 행복해진다는 것이 너무나 쉽고 평범한 일이라는 것이다. 늘 짝꿍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때론 힘겹고 버겁기도 했지만 삼촌의 마스한 손을 잡을 때면 그런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리곤 했

다. 아마 이런 경험을 통해 철없는 자신에 대한 책임감, 도덕심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삼촌, 이모님들의 밝은 표정은 긴장감이 돌던 내 표정과 마음마저 온기로 감싸주었고 멀게만 느껴지던 우리들 서로간의 사이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표면적으로 다르다는 이

유만으로 장애인들을 불편해하고 꺼려한다. 장애인들의

진정한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들이 색안경을 끼고 손가락질하며 보아온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지는 않았을까? 나 또한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방관자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장애인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이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세상에 맞서 장애인분들의 편이 되어주고 싶고, 그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 두 갈래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

**이번 혜림원 캠프를 통해**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마음으로 마음을 읽어 낼 수 있는 이들이 가득한 세상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아직 배울 점이 많고 부족한 나에게 작지만 큰 가르침을 주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혜림원의 모든 분들께 말로는 다 갚지 못할 만큼 너무나 감사드린다. 그분들께 받은 사랑을 삶 속에서 베풀며 더 많은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되새겨본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장봉혜림원. 늘 그리울 것 같다.



# 선생님 그리

## 청소년자원봉사 캠프를 뒤돌아보며...

장봉혜림원 백동현

2008년 장봉의 여름이 지나갔다. 선배 직원들이 그토록 힘주어 말해왔던 그 여름! 여름을 지나보야 장봉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했던 그 여름! 그 여름이 시간이라는 우주의 원리 앞에 두 손을 들고 지나갔다.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했던거!

마치 긴 터널을 빠져 나온 느낌이랄까... 장봉의 여름을 처음 접해본 나로서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많은 방문자 분들이 혜림원을 찾아주신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만, 그 당시 나에게는 왠지 부담스러웠던 느낌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교보 청소년자원봉사캠프 '더불어 행복하기'는 최고로 부담감을 많이 느낀 프로그램이었다. 이유인즉슨 올해 2월 초순부터 줄곧 준비해 온 캠프였지만 첫 경험자인 내가 총진행을 맡아서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 심지어는 휴무를 나가서도 캠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였다. 지나보니 별거 아니었는데 말이다.

청소년자원봉사캠프 '더불어 행복하기'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자연 속에서 청소년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단체 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기회를 경험하는 장이다. 자연과 더불어,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나들이 있는 소중한 추억의 장이다. 전국 8개 시설에서 2008년 청소년자원봉사캠프가 진행되었는데 혜림원은 서울, 경기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회차당 학생 30명, 장애인 30명씩 일대일 결연으로 진행되었다. 본원에서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1차 캠프, 12일부터 14일까지 2차 캠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1차 캠프 때는 교보생명문화재단에서 평가단과 영상촬영팀을 보내어 더 나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 갔다.

이번 캠프를 진행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스텝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었다. 엄청 힘들었을 텐데도 불평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신 분들로 인해 더욱 풍성하고 알찬 캠프가 된 것 같다.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2차 캠프에 또 다시 와서 재차 봉사자로 헌신해 준 인태리 류재웅 학생과 그의 동료들, 인태리 김나리 학생과 그의 친구들 모두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또한 레크리에이션과 조별장기자랑, 그리고 캠프파이어 진행을 맡아주신 하이리브이벤트의 장영주 실장님의 도움으로 좀 더 수월한 캠프진행이 될 수 있어 감사했다. 무엇보다도 캠프의 총책임자로서, 원활한 캠프 진행을 도와준 하기순 실장님께 감사 드린다. 혜림원의 생초보 사회복지사에게 총진행을 맡겨주셨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며, 때론 힘들어할 때에 버림목처럼 지지자가 되어주어 감사했다. 생각할수록 감사할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마지막으로 더운 여름! 식당에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신 어머니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와 있다. 가을 들녘에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들처럼, 청소년들과 장애인분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사랑과 즐거움의 추억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따뜻한 글모음 | 세하의집



# 너와 나의 행복한, 그리고 영원한 추억, 재민이에게

박 찬 송  
(천안용곡중 2학년)

**재민아,** 찬송이 언니야^^ 기억이 날 지 모르겠다. 처음 세하의 집 캠프를 신청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빠 차를 타고서 천안에서 광화문까지 약 2시간 넘게 가서 또 버스를 타고 제천까지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명찰과 작은 책자를 받았어. 캠프 일정이 적혀있고 앞으로 2박 3일 동안 생활하게 되는 파트너인 너의 사진과 소개가 나와 있었어. 사진엔 14살 여자아이로 생각되는 아이가 2명 있었는데, 이름은 나중에 알았지만 은경이와 너랑 누가 내 파트너일까 생각하던 차에 자기소개에 쓰여 있는 한마디. 뭐든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이 말이 눈에 띄었어. 잘 먹으면 몸이 튼튼하잖아. 양 갈래로 머리를 땡고 사진 속에서 환한 웃음을 짓던 너, 튼튼하게 어깨가 딱 벌어진 네가 재민이일 거라고 생각했지. 버스 안에서 세하의 집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네가 누군지 알려 주셨어. 내 예상이 맞더라. 이렇게 시작되었지.

숙소를 배정받고 점심식사를 한 후의 첫 만남. 웬지 떨렸어. 세하의 집은 처음이고 내 또래 장애인과 일대일로 2박 3일 동안 생활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너한테 불편함을 주진 않을지 은근히 걱정도 되었어. 점심식사 후에 내 짝지를 찾는데, 사진에서처럼 머리를 양 갈래로 땡아 묶고 있던 너를 금방 알아보고 옆에 앉았어. '재민아 안녕?' 이라고 살짝 말하고 어색한 웃음을 짓는데 너도 나를 보고 웃어주더라. 그 맑은 웃음에 어색함이 반쯤 날아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색함. 조장언니 소개를 하고 세하의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소개를 하고 원장님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 조금 있다가 조기를 만드는 시간이었어. 내가 12색 매직 상자를 앞에 놓고 "재민아 어떤 색이 좋아?" 그러니까 파란색 매직을 집어 드는 너. 그걸로 재민이 넌 내가 너한테 걸어준 명찰을 보면서 네 이름을 썼어. 그리고 지적장애 2급이라는 말도 썼잖아. 무슨 뜻인지 알까, 그러면서 웬지 가슴이 아팠어. 그걸 다 쓴 뒤에 넌 내가 걸고 있던 노란 내 명찰을 가리키더니 "언니, 이거." 라고 말했어. 내가 명찰을 벗어 줬더니 금세 명찰에 있는 내 이름, 글씨선이 그어진 모양을 보고서 뻘뻘 힘들게, 획도 많은 내 이름 세 글자를 조기에 정성껏 베껴 써준 너. 정말 고마웠어. 앞으로 2박 3일을 즐겁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지. 나는 그 옆에 재민이 네 이름을 쓰고, 그 가운데에 분홍 하트를 그렸을 거야. 그러자 네가 동그래진 눈으로 날 보면서 하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그 다음엔 알았어. "재민아, 이거 그리고 싶어?" 이랬더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네가 매직을 잡고 있는 손을 같이 잡아서 조그만 하트를 그리고, 또 그렸어. 혼자서 꼬불꼬불 하트를 그리던 네 손을 잡고 그 자리에 큰 하트를 그렸어. 그리고

서로 색칠했지. 그 하트를 색칠하면서 어색함이 녹아버리고 서로를 위한 마음을 가득 채웠지.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게 해달라고,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했단다.

**다음은** 세하의 집 친구들에게 급식으로 먹는 요리를 만들어 주고 조별로 요리왕 콘테스트를 하는 시간이었어. 너와 같이 시장을 보는 데 우리는 간식을 사는 일이었어. 같이 장바구니도 들고 먹을 간식을 고르고 주스



| 따뜻한 글모음 | 세하의집



도 골랐지. 그런데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우리 조 친구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아직 늦지 않아서 빨리 가려고 했는데 워낙 걸음이 느린 너였기에 결국엔 몇 발 차이로 놓쳤어. 아쉬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걷던 너에게 좀 미안했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서 말이야. 끝나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내가 브라보콘 두개를 챙겨서 너한테 하나 건네줬더니 맛있게 먹더구나. 그 후 우린 식당에서 요리를 만들었어. 우리 조는 오삼불고기를 만들었는데, 삼겹살을 썰고 매운 양파도 썰고 마늘도

다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더라. 나랑 조장언니가 파프리카와 오이를 썰어서 예쁘게 꾸몄는데 일등을 못해서 아쉬웠어. 그래도 급식 코너를 보니까 양이 적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불고기가 제일 먼저 동났더라. 정말 기뻐. 그다음은 별마로천문대를 견학하는 시간. 천안 공기는 그리 깨끗하지 않아 가장 밝은 별 대여섯 개만 보는데 전부였는데 공기 맑은 제천의 깨끗한 하늘엔 와야!! 별이 몇 개나 되던지. 너무 예뻐기에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 너도 같이 보았으면 했어. 그리고 내일 장기자랑 때 공연할 걸 만들고 준비했는데 우린 할로겐을 준비했지. 다홍색 하트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건데 흰색과 형광색만 비추고 나머지 색은 비추지 않는 할로겐램프를 보니까 참 신기했어. 웃으면 하얀 이빨만 보였거든. 그렇게 행복달려 틀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

**둘째 날.** 짝지와 함께 체험학습을 가는데 한반도 지형 견학을 했어. 천천히 걷는 너에 비해 걸음이 꽤 빠른 나는 평소대로 걷다가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정말 미안했어. 솔직히 말하자면 내심 답답하기도 했어. 그래서 일부러 빨리 걸었는지도 몰라. 네 샌들이 약한 건지 내 운동화가 강한 건지... 핑계지만 덩고 힘들었는데 작은 돌맹이를 밟아도 아프다고 잠깐 걸음을 멈추고 큰 바위가 흙으로 덮여서 빠져나온 몹시 울퉁불퉁한 바닥을 마치 가시바닥같이 아주 천천히 걸음을 내딛고 무서워하는 네가 답답했어. 둘이서 손을 꼭 잡고 간 탓에 손에 땀이 배여서 불편했는데 넌 손도 놔주지 않았지. 순간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걸까? 순간적으로 손을 놓고 바지에 땀을 닦았지. 바로 앞에 자갈길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나는 손을 놓고 있다가 네가 "언니, 언니!"하는 소리에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그냥 휙 지나간 자갈길에 네가 가로막혀 쪼쪼매고 있더라. 너무

미안했어, 재민아. 그 뒤로부터는 손도 놓지 않고, 네 걸음에 맞추면서 천천히 걸었지. 빨리 갈아야 할 때는 재민아, 조금만 빨리 걷자. 하면서 천천히 속도를 높였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한반도 지형!! 정말 한반도랑 모양이 비슷하더라. 전망대라고 하기엔 좁은 곳에 있던 한반도 지도가 붙은 표지판 쪽으로 들어가서 너와 같이 지도를 보면서 한반도를 손으로 가리켰어. 해맑게 웃는 네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 그 뒤로 갑자기 나무 계단에 앉으며 한숨을 쉬면서 다리를 툭툭 치는 너를 보니까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나무 계단은 꽤 더러워서 위에 있는 벤치로 가자고 팔짱을 끼고 올라갔는데 금방 또 출발을 하지 뭐야.

동강까지 래프팅을 하러 가는데 강원도까지 가는 거라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 산에 올라가느라 피곤했던 너는 금세 창가에 기대서 잠이 들더라. 나도 잠깐 잤고 동강에 도착했는데 자전거를 탄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내렸던 우리 조에서 내가 재민이의 손을 잡고서 작고 타기 쉬운 자전거를 찾는데 글썽 커다란 2인용 자전거가 있었어. 너와 즐겁게 타고 싶었던 마음에 열심히 자전거를 끌어내려서 타려고 했는데 너보다 내가 좀 작았던 탓일까? 앞에 앉았던 내가 뒤에 앉은 너를 지탱하지 못하고 직선 길은 겨우 겨우 갔는데 커브를 돌려고만 하면 자꾸 넘어지는 거야. 다행히 다리로 썼지만 마지막으로 자전거에 깔릴 뻔하자 너는 겁이 났고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고 했어. 아쉽지만 2인용 자전거를 잘 타는 짝지와 친구에게 넘겨주고 나는 보통 자전거에 너

를 태워서 자전거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태워줬지. 한참 있다가 선생님의 배려에 제대로 자전거를 타지 못했던 나는 신나게 바람을 가르며 몇 바퀴 돌고 네 걸음으로 가서 앉았어. 잠자리를 잡아 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운이 따라주지 않더라구.

**점심으로** 삼겹살을 먼저 먹고 동강으로 래프팅을 갔어. 뜨거운 피약벌에 달궈진 헬멧을 쓰고 꼭 조여진 구멍조끼를 입었는데 너무 덥더라. 다들 그늘로 가자고 해서 큰 나무 밑으로 네 손을 잡고 가서 쉬었어. 네가 나무 그늘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있는 걸



| 따뜻한 글모음 | 세하의집

보고 안심한 나는 친구들이랑 신나게 떠들었지.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윽고 기다리던 차가 왔어. 우리는 같이 탔는데 넌 정말 피곤했나봐. 계속 자더라구. 동강에 도착했는데도 한참을 깨워서 겨우 일어났던 너. 물이 무서웠을까? 겨우 발목까지 왔던 얇은 강물에 겁을 먹었는지 들어오려고 하지 않더라. 난 운동화를 신고 왔던 탓에 물에 어떻게 들어가지 하고 망설였지. 그래도 그냥 물에 들어갔는데 정말 시원해서 물을 뿌리며 놀았는데 잠시 널 잊고 말았지. 뭐야. 조장언니께서 챙겨주셨지만, 미안해. 그리고 드디어 래프팅이 시작됐어. 오리 꺾꽂이 하면서 노를 젓는데 넌 은경이 옆에 같이 앉았지. 한참을 갔어. 급류도 가고 천천히 물이 흐르는 곳도 가고. 그런데 우리 조 영탁이가 교관 선생님한테 까불다가 빠져버렸어. 그 뒤로 미남이도 빠지고 은경이도 빠지고, 호진이 오빠도 빠졌는데 오빠가 뒤에서 날 빠뜨린 거야. 전에 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어서 키가 안 닿는 물에서는 잘 못 노는데, 그 깊은 강에서 또 영탁이가 나한테 또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 있지. 전에도 장난치다가 빠졌었거든. 갑자기 무서워서 울면 안 그러겠지 하는 생각으로 절반은 일부러, 절반은 진짜로 울었는데 슬금슬금 도망가더라고. 참 다행이었지. 그런데 보트로 올라가는 게 문제였어. 힘도 부족하고 너랑 은경이랑 막 내 팔하고 다리를 끌어당겼지. 그래도 못 올라갔잖아. 휴우. 다행히 교관 선생님이 건져주셨지만, 네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더라. 너도 물을 무서워하는데... 그 뒤로부터 우리 좀 더 친해진 것 같아.

그 뒤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다 묻히고 먹는 너를 휴지를 챙겨서 닦아주고 다 먹은 스틱을 버려주고... 그렇게 먹은 뒤에는 도착해서 넌 방으로 갔지. 난 밥을 먹고 그날 할 할로겐 공연을 바쁘게 준비했어. 그리고 장기자랑 시간. 널 찾았는데 재민아, 재민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무대만 보고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우리의 공연 시간!! 공연은 올챙이 송으로 아주 짧았지만 두 번을 한 덕에 관심도 끌고 마지막 피날레인 하트도 만들고 정말 재밌었어. 그리고 불꽃놀이. 작은 규모였지만 불꽃도 꽤 많이 해서 좋았어. 선생님 말씀에 너희는 일 년에 한 번 볼 수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캠프파이어. 늦은 밤 하트 모양의 종이에 서로의 단점을 쓰고 그걸 태워 보내는 거. 난 거기에 내 이기적인 행동을 꽤 많이 썼고, 재민이 네가 가끔 손을 빼는 버릇도 쓰고 물을 무서워하는 것도 썼지. 그 종이를 불속으로 던졌고 그런 습관과 버릇, 행동

이 다 싹 사라질 수 있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지. 밤이 늦어서 넌 자러 들어갔고 나는 우리 조끼리 간식으로 받은 치킨을 들고 행복달력을 만들러 우리 숙소로 갔어. 조장언니 보고 피곤하시죠 하구 먼저 주무시라고 했지. 우리가 다 끝내놓는다구. 난 정말 열심히 했어. 너랑 나랑 같이 찍은 이 사진들을 보면서 네가 날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달력을 다 하고서 그동안 지낸 것들 얘기하면서 밤을 새웠지.

**드디어 마지막 날,** 제천시민회관으로 버스를 타고서 우린 같이 버스를 타고 공연하러 갔어. 할로겐 말이야. 널 앞자리에 앉히고 공연 준비를 하러 갔어. 큰 무대고 관중들도 많았기에 떨렸지만 한 시간 남짓한 열심히 연습했지. 그 때문인지 별로 틀리지 않고 해냈어. 세하의 집 친구들이 준비한 인형극도 끝났어. 다빈이오빠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 그런데도 정말 멋지게 했잖아. 가슴이 쩡 한 거 있지. 어린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눠 주는 것이 끝나자 너를 찾으러 밑으로 내려갔지. 웃으며 걸어오는 너를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 내가 챙겨놓은 풍선 세 개중 풍선 하나를 너에게 줬었지. 좋아하다가 차 안에서 내가 들고 있는 풍선 두 개를 보더니 "언니 이진 누구꺼?"라고 말하더라구. 그래서 "언니꺼" 이랬더니 다른 풍선을 가리키며 똑같이 묻고 난 똑같이 대답했지.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갖고 싶어 했던 건 줄은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색을 보며 웃고 있던 나는 버스에서 내릴 때 네가 핑크색 풍선을 한번 살펴보는 걸 보고서 알았지. 그래서 그 풍선을 너에게 바로 건네주었어.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가 웃으며 방으로 돌아가는 널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았어.

**마침내** 헤어지는 시간이왔어. 조별 달력을 설명하고 나서 짝지와 인사를 하라는 말에 나는 이렇게 말했어. "재민아, 이제 언니 갈 거야. 언니는 너 보고 싶을거야." 그러니까 재민이가 "나도, 언니"라고 말하며 웃었어. 아... 가슴이 쩡하더라고. 난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손에다 쥐어주었지. 잃어버렸나? 연락이 없더라고. 대신 이렇게 인터넷으로 얘기 할게. 재민아, 늦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 너를 통해 깨달은 것도, 미안한 것도, 감사할 것도 수도 없이 많아. 정말 고마워. 다음에 만날 수 있다면 언니한테 웃으면서 인사 할 거지? 고마웠고, 다음에 꼭 만나자~!





## 세하의집 후기

서준식  
(영주제일고 2학년)

난 부조장 이었지만 조원들보다 먼저 친해졌던 친구가 있었다. 2박3일 동안 고맙게도 내 짝이 돼 주었던 수현이다. 수현이는 만나자마자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물론 난 씩 웃으면서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짝을 만나면 어떻게 말을 건넬까 하던 걱정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수현이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조기를 만들었다. 조원들은 각각 아이디어를 내고 어색하지만 자유롭게 초기 만들기에 참여했다. 그러나 나와 수현이는 그러지 못했다. 수현이가 나에게 의미심장한 도전의 눈빛을 보냈기 때문이다. 아! 물론 눈빛과 더불어 나와 맞잡은 손에 그윽하게 힘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도 모르는 척 하면서 은근슬쩍 손에 힘을 줬다. 수현이는 멈칫하더니 일어나서 날 붙잡았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푹 내쉬며 따라 일어났다. 옛날의 날 보는 것 같았다. 수현이와의 고요한 신경전 끝에 난 겨우 쉴 수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만들 식료품을 사러 갈 때는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락을 들어, 안 그러면 넌 남자가 아니야 등의 실없는 이야기였지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서로의 어깨를 내 주는 사이가 됐다. 즐거웠던 저

녁 식사가 끝나고 봉사자들은 봉래산에 위치한 별마로천문대로 갔다. 수현이와 같이 갈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지만 밤바람이 쌀쌀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하고 별구경을 했다. 세하의집으로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은 달력을 만드는 일이었다. 저녁 장을 볼 때 같이 샀던 간식을 꺼내 놓고 제작을 시작했다. 하지만 내 성격 탓인지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어수선한 상태에서 상황은 종료됐다. 조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조차 말하지 못했다.

이틀 때, 오늘은 2박3일의 캠프 일정 중에서 가장 빠듯하고 힘든 날이라고 들었다. 일정표를 보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먼저 봉사자와 친구들이 도착 한 곳은 한반도 지형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예전에 있는 회룡포가 떠올랐다. 조별로 사진을 찍고 감상할 새도 없이 다시 버스로 돌아왔다. 수현이의 빠른 걸음을 제지하느라 애를 좀 먹었지만 다행히 수현이가 넘어지는 일은 없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래프팅 장소에 도착했다. 일단 모두 내려서 조별로 모인 후 먼저 자전거를 탔다. 수현이를 태우고 중심을 잡아주느라 애를 먹었지만 다행히 넘어지는 일은 없었고 흘린 땀도 나중에 혼자 자전거를 타면서 증발시켰다. 점심시간에 수현이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먹었다. 고기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음료수도 그렇고, 음료수를 보호하는 것은 내 임무였고 그래서 난 최대의 적을 코앞에 둔 채 그 임무를 실행해야 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순조롭게 점심식사도 끝났다.



이제 본격적인 래프팅 준비를 했다. 구명조끼를 입고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마지막 노를 잡는 것으로 준비는 끝났다. 뒤늦게 온 버스를 타고 출발, 산 하나를 넘어서 도착한 강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 조와 친구들도 보트를 타고 출발했다. 찌는 태양 아래에서 잔잔한 강물을 타고 노를 젓는 것은 살을 태우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강물을 타고 흘러 가다가

| 따뜻한 글모음 | 세하의집

중간에 멈춰 고기를 잡기도 하고 바위에 보트가 걸려 한참을  
 끄덕대기도 하며 종착점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기진  
 맥진 해 있었고 난 샤워에 대한 갈망을 풀려 했으  
 나 시간 관계상 뒤로 미뤄야 했다. 씻지도 못  
 한 몸을 대충 닦고 마른 옷을 걸쳤다. 수현이도  
 능숙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참으로  
 대견한 놈이라고 생각했다. 돌  
 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현이는  
 잠이 들었고 난 머리를 받쳐  
 췌다.



캠프의 마지막 밤이다. 원래는 막춤으  
 로 예정 돼 있던 우리 조의 장기자랑 종목이 밤 새워 고생하신 조장 선  
 생님의 수고 덕에 잘 짜여진 울동으로 바뀌었다. 실로 감사한 일이다. 수많은 연습과  
 손목에 매단 풍선이 몇 차례 터지는 무안한 일이 있던 뒤에 우리 조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위에 섰다. 역시 조장 선생님의 노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우리는 안정감 있게 장기  
 자랑을 마칠 수 있었다. 나는 같이 참여한 정석이와 함께 다른 조의 장기자랑을 바라보  
 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이 온 사람 중 다른 한명인 호진이가 속한 2조의 장  
 기자랑은 분위기가 좋았다. 오늘 밤에 딱 맞는 퍼포먼스였다. 장

기자랑이 끝나고 간단한 조기 소개가 있는 후에 불꽃을  
 발사했다. 하늘은 아름답고 보기가 좋았다. 일부 친구  
 들은 자리 들어가고, 나는 수현이를 찾아 조원들과  
 함께 앉았다. 나는 캠프파이어 점화를 하러 나갔  
 다. 불이 순식간에 붙어서 약간 놀랐다. 얼굴이 화  
 끈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장작은 잘 타올랐지만 우  
 리들은 할 말을 적은 종이를 태우지 않았다. 좋은 말  
 을 썼기 때문이다.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간식을 받아서



숙소로 돌아와서 달력 제작을 완료했  
 다. 우리 조의 달력이 가장 좋아 보  
 였지만 내가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  
 아서 그런지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 나에게도 사교성이란 게  
 풍부했으면.

**마지막 날,** 기진맥진해 있던  
 우리 조는 조식시간을 수면에 할애  
 하곤 곧바로 일정에 들어갔다. 공연장  
 에 가서 수백 개의 풍선을 묶고 우리 친구들의 공연도  
 보았다. 공연이 끝나는 길에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눠주었다. 기뻐하는 아이들의 표정  
 을 보는 것은 역시 기분 좋은 일이다. 인형극 공연이 모두 끝나고 난 객석에서 수현이  
 를 찾아 다시 버스에 올랐다. 수현이도 풍선을 가지고 있었다. 난 버스 안에서 이제 마  
 지막이라고 말했다. 수현이는 웃었다. 무슨 의미인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돌아와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수료식을 했다. 봉사활동 확인서와 소정의 상품을 받고 달력의 소개  
 도 무사히 끝마쳤다. 나와 수현이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친해 보였는지(같이 온 친구 말  
 로는 형제 같았다고 한다) 우정상을 받았다. 괜스레 기뻐다. 나와 수현이는 서로의 얼  
 굴을 쳐다보며 씩 웃었다. 상품도 상품이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얻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볼펜을 꺼내 내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었다. 그리고 역으로 향하는 차 앞에서 서  
 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난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  
 왔다.



다시 읽어 볼 틈새도 없이 시간에 쫓기며 후기를 썼습니다.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 과정이 이렇게 재밌었던 건 오랜만인 것 같네요. 이번 일은 앞으로도 저에게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이런 소중한 추억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  
 을 전하며 후기 마칩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 다른 것

추혜민  
(태양중 2학년)

**드디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세하의 집으로 가는 날이다. 사촌동생이 못가서 혼자 가게 되면 어찌나하는 생각에 걱정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담당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 버스를 타기 전에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 낯설어서 좀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다들 아주 착한 사람들이었다. 세하의 집에 가는 동안 선생님께서 나와 짝꿍이 될 짝지들을 소개해 주셨다. 미리 조도 다 짜여있었다. 내 짝지는 21살인 경진이 언니였다.

**세하의 집 도착.** 들어가서 줄을 서고 실내로 가는데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될 친구들을 보게 되었다. 작년에 숲체험 캠프에서는 시각장애인 친구들이라 거부감은 특별히 없었는데 이번에 만난 장애인들은 교회에서 봉사활동 갔던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였다. 그때는 어릴 적이어서 큰 충격이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잊고 지냈던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다. 애써 마음을 감추고 나에게 손 흔들어주는 친구들에게 소리 내어 안녕이라고 하였다. 인사를 하고 나니 내 마음속에서의 쾌감이랄까? 뿌듯함

이 느껴졌다. 그 뒤 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인격체이고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장애인 친구들도 '그냥 다른 것' 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말에 난 소름이 짹- 끼치고 답살이 돋았다. 그 다음 영상을 봤는데 우리와 활동을 함께 하진 않지만 이하의 집, 세하의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그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힘든 일들도 많고 육체적인 고통도 따를 텐데.....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럽고 존경스러웠다.

이제 조를 짜고 짝지들을 만나는 시간. 나의 짝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짝지가 내 옆에 앉았는데 차마 말을 걸지 못했다. 그렇게 어색하게 몇 분을 보냈다. 그리고 조끼리 초기를 꾸밀 때 비로소 말을 하며 조금이나마 친해지게 되었다. 경진이 언니는 아주 적극적 이었다. 나는 매직으로 칠하다가 너무 팔이 아파서 쉬는데 언니는 계속했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일까? 암튼 매사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닳고 싶었다. 짝지들 중에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도 많았다. 어떤 오빠는 정말 꽃미남 이었는데, 난 처음에 그 오빠는 우리처럼 봉사활동에 온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친해지고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그래도 잘생기긴 잘생겼다.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말도 걸고 아주 조금 친해졌다. 많이 못 친해진 게 좀 아쉬웠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선생님들께서 아이스크림을 사오셨다. 자고 있다가 아이스크림을 나눠줘서 두개를 받아서 언니와 나눠먹었다. 쌍쌍바와 누가바 두 개 중 나는 쌍쌍바가 먹고 싶었다.





| 따뜻한 글모음 | 세하의집



## 우리의 추억을 다듬어

### 사진첩에 고이 정리하듯!

이민선  
(진건중 1학년)

**세하의 집**, 내 생각의 전환점이 된 캠프. 처음에는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신청했던 캠프였다. 장애우라길래 시각, 청각장애 이런 것 인 줄 알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하의 집 도착하기 전 받은 짝의 사진은 조금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걱정은 날 괴롭혔다. 아~ 만약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에 본 장애인은 침도 흘리던데, 그래도 잘해줘야지! 생각하고 세하의 집으로 들어왔다. 같은 방 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드디어 짝과의 시간!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나에게 웃어주는 미경 언니를 보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더 잘해 줘야겠다 다짐했다. 함께 마트에 갔을 때 "사고 싶은 것을 안 사준다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



을 때는 어떻게 할까? 좋게 달래야 하나, 무섭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미경언니! 너무 힘들었다. 점점 체력이 고갈되어 가다 보니 짜증도 내게 되어 미안하다. 래프팅 갈 때 들떠 있는 미경언니를 보면서 나도 즐겁고 한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장애인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싫어한다고 들었던 것 같지만 얼마나 바깥 구경을 못했으면 얼마나 사람을 못 만나면 저렇게 좋아할까? 라는 생각에 더 잘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사실 너무 힘들 때 봉사자라는 신분을 잊고 친구들에게 가버린 내가 지금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캠프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었는데 마지막 날 밤에 달력을 만들면서 야 아쉬운 생각이 났다.



이렇게 첫 번째 캠프를 마치고 나니 보람보다 더 많은 미안함과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었다. 캠프가 끝나고 룸메이트였던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짝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이 말을 듣고 '아! 아직 우리를 잊지 않고 있구나. 미경언니도 날 잊지 않고 있을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 내년의 캠프는 신경 쓰지 않고 순수한 소감문을 썼다고는 할 수는 없다. 첫 캠프를 이렇게 아쉽고 부족하게 보내서 내년 캠프에 가서 다른 짝에게 더 잘 해주고 싶다.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잘 못 해주었던 것들을 모두 해주고 싶다. 물론 미경언니에게는 더 베풀 기회가 없겠지만 내가 베풀 친절이 돌고 돌아서 미경씨에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에게 많은 가르침과 경험을 준 미경씨에게 편지를 한통 남긴다.



| 따뜻한 글모음 | 세하의집

미경언니 안녕하네요?  
 세하의 집 파트너 '미인선'이에요.  
 사실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는 아무런지도 않았는데, 참고를 하려고 세하의 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소감을 보고 나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네요. 정말 미안해요. - -  
 우리 함께 했던 2박3일 기억나요??  
 첫 만남에서 난 정말 설레고 두근두근했어요.  
 차원에서 받은 사진을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무슨 캠프인지도 모르고 봉사시간을 준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지적당하네요...  
 행여 상처라도 주면 어차지? 잘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ㅎㅎ 사실 우리 만났고 처음에는 말도 많이 했었죠.  
 제가 끝까지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마트에 갔을 때, 아... 정말 힘들었어요.  
 언니가 자주 가고 싶은 곳에만 가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곳에서까지는 초선을 다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언니에게 부채질도 해주고...  
 전문대 참 예뻐는데 같이 못가서 아쉬워요.  
 거기에 별도 참 예뻐데... 언니 예뻐가 좋아하잖아요.  
 거니 갔는데 미경언니랑 같이 갈으면 좋아서 아주 해맑게 웃었는지? 라는 생각이 아셨어요.

둘째 날, 이동 중 차 안에서 말도 안하고 잠만 자서 심심했죠?  
 제가 잠이 좀 많아요 ㅎㅎ 이해 좀 해주세요~ 레프팅 가서 재미 있었죠??  
 물에서 돌에 부딪혔다고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을 때 호기 나고, 친구들 이랑 놀고 싶은 마음에 조금 선생님께 맡기고 친구들한테로 가 버린 거 미안해요. 이런 이런 소감문이 아니라 사과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저만 힘든 줄 알고 친구들에게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도 했어요.  
 타운 캠프들도 미경언니보다 힘든 점이 많은데 전 그걸 모르고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캠프파이어 할 때 서로의 단점 쓰는 것  
 힘들고 졸리면 짜증을 많이 내는 성격이어서 언니 단점을 마구 썼던 거 같아요.  
 저 정말 야기 같고 이기적이죠?  
 미경언니에게 제 단점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다답도 잘 못 하는 것에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 밤에 행복달력에 소감을 쓴 면서야 미안함과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마지막 인사할 때 좀 더 다정하게, 사랑을 담아서 인사했어야 하는데 잘 지나만 말도 못하고 외뻐졌네요.  
 처음 이리서 서툰 점도 많았고, 제가 어른스럽지 못해서 제 생각만 했었기 같아요.  
 다음에 다시 세하집에 가게 된다면 미경언니가 아니라 다른 짝지에게 더 잘해줄게요.  
 제가 그 짝지에게 잘해주면 그 짝지는 돌고 돌어서 미경언니에게도 돌아줄까요?  
 다음세하 캠프에 꼭 가서 다시 뵙으면 좋겠네요.  
 인녕히 겠세요. - -

2008.8.30  
-미선이가-

추신: 소감문 콘테스트 민선씨 통과시켜달라고 말 좀 해주주세요~ 나의 든든한 백 미경언니 뽀뽀2~♥

# 선생님 그리

## 행복한 습관

세하의집 정아름

세하의집의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겨난 습관 중 하나는 매년 새해를 맞으면서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일 년 계획들을 그려보는 것이다. 완성된 그림들 속에서 “더불어행복하기 캠프”는 점점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다.

올해로 4호제를 맞이하게 된 아름다운 홀스레이 캠프. 캠프에 참여하시는 량양 선생님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사전회의의 횟수도 회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아진다. 예년보다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장애인, 비장애 청소년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것이 선생님들의 최종 목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가운 얼굴들과 처음 오는 곳에서의 환경에 속스러워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세하의집을 다시 찾은 청소년들은 장애인 친구들의 장·단점을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사회복지사가 되어 처음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 주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의 이해와 참다운 자원봉사’는 열 번의 이론적인 설명과 동영상 강의보다 한번의 직접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캠프 중에 세하의집이 짝이예요”

“내년에도 꼭 올거예요.”

“형 올 때까지 선생님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있어야해. 꼭 얼굴보러 다시 올게”

“자원봉사가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청소년 친구들이 런지는 이런 말 한마디와 만남을 통해 세하의집 선생님들이 더 많은 고민거리들을 알게 되고 기대감을 갖게 된다. 아직은 소수의 청소년 사회복지사들로 인해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만 홀스레이 캠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 갈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좀 더 빠르게 다가올 거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 동그라미 재활원을 갔다와서

강 지 수  
(성지송학중 3학년)

**8월4일부터** 8월6일 2박3일 동안 청소년자원봉사캠프 동그라미 재활원을 갔다 왔다. 동그라미 재활원은 그 동안 후배들이 봉사를 한곳이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름만 알고 재활원에서 직접 봉사를 한 적이 없어서 무척 궁금했다. 후배들이 갔다 온

모습을 보니 더욱 가고 싶어졌다. 드디어 동그라미 재활원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학교에서 캠프에 참가하고 싶은 학생들을 선착순으로 뽑아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다. 캠프 당일 날 두근 반, 설렘 반으로 캠프장에 도착했다.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은 내가 제주도 에 온 것을 알고 무척이나 놀라셨다. 어떤 선생님들 은 제주도에서 이곳까지 온 걸 대단하다고 그랬다. 난 그만큼 이 캠프에 오고 싶었다.

**첫날에는** 장애인 체험과 파트너를 정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체험을 했는데 휠체어를 탈 때는 팔이 엄청 아프고 시각장애인 체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불편했다. 불과 1~2분이지만 평생 그렇게 사셔야 되는 장애인분들을 생각하니 이 몇 분 조금만 참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날에는 2인자전거, 세족, 천연 염색 등을 체험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체험을 장애인분들과 하나가되어 체험을 해서 인지 보람을 느꼈다.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세족이다. 파트너와 내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체험이다. 은정언니랑 나랑 번갈아가면서 발을 닦아주는 모습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일정 중에 지역사회 문화 탐방이 있었다. 시내로 나가서 조끼리 각 조마다 활동을 하는 것이다. 활동하기 전에 장애인분들이 독립하여 만든 우리집이란 가게에 들렀다. 그 가게를 보니 대단하다고 느꼈다. 우리집을 보니 선입견들이 사라졌다. 진심으로 그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조는 영화 '님은 먼곳에' 를 봤다. 단체티를 입고 장애인 식구들과 함께 보니 더욱 영화가 재미있었다. 마지막 날 식구들과 우리는 헤어져야만 했다. 처음에는 '이 캠프 언제 끝나지? 얼른 집에 가고 싶다.'란 생각만 했었는데 막상 집에 갈려고 하니 발이 안 떨어진 다. 파트너가 간다고 우는 식구들도 있었다. 정말 이 캠프에 온 것이 평생에 기억에 남을 것이다.

**동그라미 재활원**은 다른 곳보다는 많이 달랐다. 소록도를 3년간 갔다 온 나에겐 동그라미에서 지 낼 때에는 별 힘든 점이 없었다. 다른 곳에서는 노력 봉사를 하지만 동그라미재활원에서는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해서 좀 더 쉽게 장애인과 접하고 선입견을 없앨 수 있었다. 나의 꿈은 사회의 약한 자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이 캠프를 와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 내 주위사람에게 꼭 한번 체험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캠프이다.



# 선생님 그리

## 살아있는 천사들과의 만남

동그라미재활원 장민주

올해로 두 번째 진행하게 된 청소년자원봉사캠프. 하루도 캠프생각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점점 캠프일이 다가오는데 아이들의 신청이 저조하다. 조금해지고 략립해 지는 마음을 가라앉고 지역의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니 하나둘씩 참가자들이 늘어났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모를 예민함, 걱정스러움이 앞섰다.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 자신감과 즐거움으로 캠프를 시작하였다. 서먹해 하는 아이들에게 캠프에 참가하는 여러분들의 용기가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원장님의 말에 공감을 하며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눈인사를 건넸다. 모든 프로그램이 원만히 진행이 되어 가고 청소년, 스텝, 장애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고맙기만 하다.

월케어, 시각 등의 장애체험을 마친 아이들은 "우리가 미래의 장애인! 우리가 길게 사랑해 주야할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체험효과가 이렇게 크라니! 감탄이 절절로 나온다. 이날 지역사회문화체험을 하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단체로 다니는 게 쉽지 않았을 러인데 아이들은 연신 싱글벙글이다. 장애인파트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든 참피해 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니 '아 이 아이들이 진정한 천사로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50여명의 천사들이 다녀간 동그라미재활원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장애인들의 방에는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고, 그 사진을 보며 아이들을 기억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 나가면 그때 캠프참가팀을 본 주민들의 인사가 생겼다. 모두가 소중한 추억이다.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은 장애인을 더 기깝게 바라보는 눈이 키워졌고 장애인들에게는 50여명의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 비장애, 장애라는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라는 이름으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내년의 천사들을 기다려본다.



## 마지막 캠프, 이제 새로운 시작!

박인근  
(한빛고 3학년)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전 여전히 이번에도 가겠지 했는데 예상 밖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 때의 저의 마음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착잡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저의 의지가 통했는지 기회는 금방 왔습니다. 동생네 학교가 방학을 아직 안 해서 못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겸사겸사 가게 되었습니다. 캠프 때 쓸 물건들과 옷을 준비하고 그렇게 캠프의 전 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첫째 날 11시 45분 쯤, 광주에서 출발한 팀들이 도착했습니다. 매우 설레었고 긴장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만난 동생들도 있어서 즐거웠고 작년 스텝 형들과 누나들, 동백원 식구들이 있었기에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나를 못 알아봐서 약간 섭섭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호준이 형은 알아봐주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모두가 왔으니 캠프를 진행해야만 했죠. 그래서 전 먼저 우리 조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혼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의외로 첫 날부터 친했던 조가 1조가 아니었

| 따뜻한 글모음 | 동백원

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조의 막내 2명이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었나 생각도 해보고요. 모두 자기소개도 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함께 서먹서먹한 감정들을 풀어버리고 친하게 지내려고 모두들 열심히 것 같았어요. 저도 저의 파트너 영수 형과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대학교 등록금, 고등학교 생활 등. 이다음에는 장을 보러 가고 가게로 들어가 밥을 먹었습니다. 음악분수를 보았지만 물놀이는 못 해서 아쉬웠고 영수 형한테 조금은 미안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니깐 웬지 모든 것이 쉽게 보이고 모두들 대단하고 생각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긍정적인가? 라는 의문도 들면서 그렇게 첫째 날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달콤한 잠에 빠졌습니다.



**둘째 날은** 첫째 날보다 컨디션도 좋고 조금 일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백원 식구들과 함께 찻집을 가지고 웃긴 석상 만들고 예쁜 손거울도 만들고 페이스페인팅으로 상대방의 얼굴에 예술에 가까운 그림을 그려줄려고 했는데 가위, 바위, 보에서 저만 계속 지는 바람에 제 얼굴이 웃겼지만 그래도 저를 보고 웃는 사람이 있었기에 저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펜션으로 이동을 했는데 조금 길이 불편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나중에야 짐을 옮기기는 했지만 이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5시쯤에 바닷가에 가서 놀고 저녁에는 진실한 동백원 친구들의 마음과 봉사자들의 마음도 보고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웠다면 1조의 시현이의 파트너가 바닷가에 던진 것이 아쉬웠지만요.

**셋째 날은** 그냥 청소하고 점심까지 먹고 가는 것이 끝이었지만 모두 하고 싶은 말을 롤링페이퍼에 해서 좋았습니다. 이번 캠프는 진짜로 힘든 것이 많았지만 그 덕에 봉사자의 자세를 알았고 반성도 하게 되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이라는 단어를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마음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때 자신감이 있었다면 모든 분들한테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만나자고..... 되돌아오겠다고.....

# 선생님 그리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없애준 캠프

동백원 일영택

어쩌면 2박 3일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성장을 한 것은 나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을 재정립 했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비록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장애인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8년째 장애인과 생활을 해온 나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이것은 봉사에도 경험이 중요하라고 생각했던 나의 인식을 바꿔 놓았다.

캠프 중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동백원 식구인 원경씨에 대한 것이다. 여름 이기에 바닷가에서의 활동을 계획했다. 장애인이 바다에 가는 것은 쉽지 않기에 라들 물놀이에 대한 기대도 가득 차 있었다. 그 누구보다도 원경씨의 기대는 컸다. 물에 들어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바다에 들어온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바다를 경험하지 못한 이가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게다가 이곳은 바다와 인접한 여수이다.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잊었다. 아마 그녀는 이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다른 이에게는 수업이 많은 캠프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인생의 첫 순간이며, 잊을 수 없는 캠프였다.

사실 진행되는 동안 하루에 세 시간 정도 밖에 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캠프를 무사히 마치고 느낄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리건 몸이 불편하건 그것은 사람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 청소년 참가자들은 반대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사라지고 '더불어 행복하기'라는 생각이 가슴속에 남았을 것이다.

| 따뜻한 글모음 | 늘사랑의집



## 나래와 나, 더불어 행복하기

하 지 연  
(상일고 1학년)

‘늘 사랑의 집’ 을 다녀온 이후 진짜 장애인인 ‘나’ 라는 생각이 그치지 않았다. 마음의 장애와 신체의 장애 중 어떤 것이 더 큰 장애일까 하는 의문도 끊이지 않았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평소 감사하는 마음 없이 생활이 힘들다고 자주 짜증내왔던 내가 이번 봉사활동을 마치고 스스로를 질책하면서 반성하는 말이다. 나는 주말이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장애우들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지연이 봉사활동 열심히 하네’ 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지만 돌이켜보면 참된 마음으로 봉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 동안의 나는 ‘정상적이고 사지 멀쩡한 우월자’ 로써 ‘불쌍한 장애인’ 을 도와 왔는지 모른다. 왜곡된 시선으로 장애인들을 바라보고 측은한 생각으로 도우려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부끄럼이 앞선다.

『신변 처리가 불가능하고 의복 착용이 가능하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적장애 1급 열다섯 살의 여자아이 ‘장나래’』정동진에 옆에 위치한 ‘늘 사랑의 집’ 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받아 본 짝꿍에 대한 두 줄의 기록이다. 동고동락할 친구가 무

척 궁금했지만 쏟아지는 줄음에 눈을 감았다. 중학교 1학년인 남동생 덕분에 그럭저럭 견뎌냈지만 광주에서 시작된 긴 버스여행 끝에 완전 파김치가 되어 버렸다. 도착하여 바라본 ‘늘 사랑의 집’ 은 예쁘기 보다는 깔끔한 곳이다. 지금까지 다녀 온 장애시설처럼 잔디가 깔린 운동장, 파스텔 톤의 건물들이 없다. 하지만 풀꽃들이 곳곳에 자라는 산책로, 약간 떨어진 곳에 어렴풋이 보이는 밭들, 발밑으로 멀리 내려다보이는 넓은 바다가 피곤한 몸과 긴장했던 마음을 풀어주었다.

**도착 후** 점심을 해결하고 입소식과 간단한 체험에 이어 것처럼 궁금했던 짝꿍을 만나는 시간이다. 선생님 중 한 분께서 나래는 작고 귀여운 아이라고 귀띔해주셨다. 함께 온 봉사자들이 각자의 짝꿍을 만나고 찾아 가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피약벌 아래서도 짝꿍에 대한 호기심만을 부풀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건물 안 쪽에서 걸어 나오는 여자 아이가 눈에 띄었다. 어린아이처럼 유난히 작은 키에 해맑은 미소를 띤 조그마한 얼굴을 한 아이가 아장아장한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그것이 나의 짝꿍 나래와의 첫 만남이었다.

나래와 하나가 되어 맞는 첫 일과는 천연염색이었다. 짝꿍과 함께 풀을 뜯고 꽃을 따서 모아야 했다. 나는 나래의 장애가 궁금했고 또 어떤 친구인지 알 수 없어 주어진 일은 고스란히 나의 몫이라는 생각으로 엉거주춤하게 나래의 곁에 서 있었다. 망설이고 있는 사이 나래는 향기를 맡아보고 일일이 만져보면서 꽃잎을 하나 둘씩 모아나간다. 참 이상하다. 장애로 인해 수동적이고 의존적일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스스로 일을 처리하면서 직접 딴 꽃을 내보이고 웃기까지 한다. 천사가 따로 없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본격적인 천연염색이 시작되자 예상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생겼다. 고집이 센 나래는 계속 혼자서 자기방식대로만 움직이려고 한다. 웃으며 살살 달래도 보고 화난 척도 했지만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 속이 상했지만 열심히 고무망치를 놀리며 물들이는데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 띤 얼굴로 노란 꽃잎 몇 장을 건넸다.

**둘째 날,** 작은 솟대를 만들기 위해 나래의 손을 잡고 강당으로 향했다. 선생님의 짤막한 설명이 끝나자 이미 다듬어진 나무가 각조에게 나누어졌다. 우선 내가 먼저 칼로 몇 번 손질 한 후 나래에게 조립을 권했더니 너무나 영뚱한 모양을 만들어 놓았다. 원하는 작품이 아니라고 멋진 솟대가 아니라고 짜증을 낼 법도 한데 마냥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언제나 웃는 모습의 나래를 지켜보고 있자니 힘든 학교생활을 빌미로

## | 따뜻한 글모음 | 늘사랑의집

가족들에게 짜증을 냈던 내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착하고 예쁜 나래 덕분(?)에 열기설기 엉성한 솟대가 그 나래의 개성을 가지고 깔끔하게 완성되었다.

먹는 것을 인생의 낙중 하나로 삼는 나는 강원도하면 감자와 옥수수를 떠올리곤 했는데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감자를 캐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시범을 보이신 선생님께서 호미로 땅을 헤치자 굵직한 감자알들이 밖으로 나왔다. 무를 뽑듯이 줄기를 잡고 썩 당기면 감자들이 줄지어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생각 밖이다. 호미로 흙을 파 헤치면 일부러 묻어 놓기라도 한 것처럼 데굴데굴 굴러 나온다. 용감하고 부지런하고 고집 센 나래가 또다시 앞장서서 호미를 들고 나섰다. 나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커다란 감자가 쑥쑥 밖으로 나온다. 자신을 보며 웃고 말을 건네는 사람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열심히 감자만을 캐는 나래는 농사꾼이 따로 없다. 이제 우리는 수확한 감자로 전을 만들어야 한다. 감자를 깎는 것이 아니라 칼로 내려치고 있는 나래가 손을 다칠까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기뻐해야할지, 위험한 행동을 말려야 할지 난감하다. 한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을 많이 졸였지만 직접 캐고, 깎고, 갈아서 만든 감자전은 맛이 아주 좋았다.

**나래의** 식사 보조가 끝나자 바닷가로 향하는 버스에 탔다.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 정동진에 도착했고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다. 나래는 물어 들어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 하는 수 없이 나래는 선생님께서 맡으시고 나는 짝꿍 없이 잠시 동안 혼자 있게 되었다. 처음 한 동안은 말을 지지리 안 듣는 황소고집 나래가 없어 무척 흥분했다. 나래가 위험한 일을 하지는 않는지 노심초사하고, 혼자 이탈을 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살피기 위해 찢쩍떨 필요도 없었고, 의리(?)없고 불임성이 좋은 나래가 다른



봉사자들을 더 따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툭툭거릴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래가 어디쯤 있는지 두리번거리며 찾게 되었다. 이틀도 안 되는 시간동안 나래를 보살피기 위해 꼭 함께 있어야하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진 모양이다. 다시 나래를 만났을 때는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붉어졌다. 또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면서 야외에서 고기를 굽고 지지는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다. 처음나래는 한참 동안 오직 닭다리 한 개만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적게 먹어서는 큰일이다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주었는데 계속 거절당했다. 그러나 나의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나래는 테이블 수가 적지 않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고기들을 남김없이 쓸어 버렸다.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 용감하고 행복한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마지막 날이다.** 강당에 모여서 간단한 소감문을 쓴 후에 롤링페이퍼를 썼다. 우리 조의 롤링페이퍼는 짝에게 하고 싶은 말 반, 쓸데없는 잡담 반으로 난장판이 되었다. “보고 싶을 거야, 잘 해주지 못 해서 미안해, 또 올께...” 각기 다른 심정으로 다른 다짐으로 글을 써내려갔다. 이제 나래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온다. 마지막이 될 나래의 식사보조를 위해 수선화관으로 갔다. 나래는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날따라 유난히 개구진 웃음을 짓고 장난을 일삼았다. 3일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막상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남았다. 떠나는 버스 안에서 인사나 제대로 하고 올 걸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뱅뱅 돌았다. 광주로 오는 오랜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버스 옆 좌석에 앉은 동생과 나래의 이야기를 했다.

**나의 봉사활동은** 초등학교 6학년 여름 방학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주말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애시설을 다녀오곤 했다. 이번 캠프의 이름은 ‘더불어 행복하기’였다. ‘도우며 행복하기’나 ‘봉사하며 행복하기’가 아닌 ‘더불어 행복하기’였다. 나래는 장애가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도 결코 혼자서는 한시도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지적장애 1급, 15살의 나래 또한 우리와 서로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장애인들은 소심하며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심한 편견이다. 우리는 세상 누구와 만나든 서로가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함께 보조를 맞추며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한다. 이번 캠프를 통해 나는 한층 더 성숙되었고 열린 마음으로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 따뜻한 글모음 | 늘사랑의집



# 더불어 행복할 나, 그리고 우리

김은지  
(남수원중 2학년)

**유독 하얗고** 뽀얀 피부에 연갈색 눈동자와 머리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예쁜 정원아, 잘 지내고 있지? 여름의 끝 무렵에서야 너를 떠올리는구나. 사실 얼마 전에 네 꿈을 꿔. 너와 내가 손을 꼭 잡고 놀이동산에 가서 즐겁게 노는 꿈을 말이야. 그 꿈을 꾸고 너무나 생생해서 정말 너를 만난 것만 같았어. 내 친구 예령이도 네 꿈을 꿔다고 해. 아마 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어. 너도 날 보고 싶어 할까 생각하며 슬쩍 미소를 짓게 돼.

내가 이 캠프를 알게 된 건 교실에 붙은 안내문 때문이었어.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방학을 알차게 보내지 못한 나에게 이 캠프는 웬지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니까. 우여곡절 끝에 늘사랑의집의 최종 선정자가 된 뒤 설렘과 동시에 웬지 모를 불안감이 생겼어. 근처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굳이 수원에서 꽤 먼 강원도 까지 가야하나하고 말이야. 하지만 다행히 잘 찾아갔단다. 너무 걱정을 해서 그랬나? 모이는 시간보다 1시간이나 더 일찍 도착했어. 차를 타고 늘사랑의

집에 가면서 과연 내 짝꿍은 누가 될까?란 생각을 안고 잠이 들었어. 도착해서 식사를 한 뒤 휠체어 체험을 했는데 내가 탄 휠체어는 한쪽 손잡이가 없어서 나와 짝을 했던 순호쌤이 고생하셨어. 너를 만나기 전, 나랑 같은 방을 썼던 예지언니랑 헤인 언니가 너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 말괄량이 같다는 얘기에 약간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점점 너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단다. 두구두구! 드디어 너를 만나는 시간이 왔어. 멀리서 보이는 자그마하고 귀여운 꼬마 숙녀를 보자마자 웬지 모르게 너라는 확신이 딱 들더라. 너를 처음 봤을 때 그 기쁨이란! 진짜 꼬마 천사 같았단니까? 역시 늘사랑의집 인기스타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 처음 보는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 애교스러운 얼굴로 팔을 꼭 벌리며 안기더라. 너를 내 품에 꼭 안고 자그맣고 귀여운 손을 잡았을 때 아, 이제 정말 내가 정원의 짝꿍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 너는 낯선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괜히 궁금해지네.

**들뜬 마음으로** 첫 활동인 천연 염색을 했어. 손을 꼭 잡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예쁜 꽃잎들을 판 뒤 천을 덮고 망치로 찍으면 천연 염색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다른 친구들과 짝꿍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독 난 이리저리 돌아다녔지. 그래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천연 염색을 마무리 할 수 있었어. 그 손수건은 내가 잘 가지고 있어. 시간이 더 있었다면 니 것도 하나 더 만들걸 그랬나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벌써 저녁이 다 됐어. 저녁식사를 하기 전에 네가 밥 먹는걸 도와주게 됐는데 밥을 잘 안 먹어서 속상했어. 이제 쑥쑥 커가는 시기이니까 밥 많이 먹고 잠도 많이 자야지 키가 쑥쑥 크지. 또 유난히 남자를 좋아해요~ 언니가 주는 밥은 안 먹고 오빠가 주는 밥만 꿀떡 꿀떡 맛있게 먹구. 솔직히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언니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안 믿어주려나? 그래도 오빠가 주는 밥이라도 맛있게 먹으니까 다행이야.

**둘째 날에는** 원래 바다를 갔어야 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바다를 못 가게 됐어. 바다 가는 걸 기다렸는데 말이야. 아침밥 역시 안 먹은 너를 보고 한숨 폭 쉬고, 바다에 못 가게 되서 아쉬운 마음에 또 한숨 폭 쉬고. 그래도 정원이 너랑 함께 있다는 게 즐거웠어. 식사 후 솓대를 만들었는데 역시~ 정원은 남자를 좋아해요~ 그것도 꼭 잘생긴 남자만. 솓대 만들 때에도 언니랑은 같이 안 있고 꼭 잘생긴 오빠한테 가서 안아 달라고 그러구 볼에 뽀뽀하고. 이 언니는 또 상처를 받았단다. 흑흑흑. 그래도 네가 예쁘니까 봐주는 거야.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대신 박물관을 갔지. 가 보니 '와~ 신기하다' 라

따뜻한 글모음 | 늘사랑의집

는 생각 밖에 안 들었어. 평소에 박물관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렇게 웅장한 박물관은 처음 봤거든. 여기서 또 정원이 성격 나온다~ 언니 손 안 잡고 자꾸 오빠한테 안겨~? 다시 버스에 탔을 때도 그래. 갈 때는 언니 옆에 앉았다가 올 때는 오빠 옆에 앉고 말이야. 그래도 정말 인기 많은 정원이라는 생각에 다시금 뿌듯해졌어. 바다 못 가는 아쉬움을 대신 하려고 중간에 먼발치에서라도 바다를 구경했어. 정원이란 손 꼭 잡고 바다 보고 싶었는데 많이 아쉬웠어.

늘사랑의집으로 돌아와서 바비큐 파티를 했잖아. 우리 정원이, 오빠 무릎에 딱 앉아서서 고기도 꿀떡꿀떡 잘 먹더라. 나도 많이 챙겨 주고 싶었는데, 저녁 먹고 선생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쳤는데 이게 웬일이라? 얼레리 폴레리, 정원이 오줌 싼대요. 갑자기 똥자리가 축축해지는거야. 그래서 정원이 바지를 만져봤더니 휴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계속 들썩들썩 거린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다며. 너를 조금 더 유심히 살피지 못 한 내 잘못일거야. 옷 갈아입히고 나서 다시 촛불의식 하러 왔지만 넌 어느새 잠자리에 들었지. 짝꿍 없이 혼자서 조금은 외로웠어. 글씨 써지는 폭죽으로 정원♡은지 이렇게 썼다. 나 잘했지! 니가 보지는 못 했더라도 마음으로 느끼길 바라면서 말이야. 강원도의 공기는 참 맑아. 여기 수원에선 잘 보이지 않는 별도 참 많고. 그곳에 가서 달도 보고 망원경으로 달에 송

송 난 구멍도 봤어. 너도 같이 봤음 참 좋았을텐데. 마지막 밤을 허무하게 보내기는 아쉬워서 옆방 언니, 오빠 과 신나게 놀다보니까 새벽 5시를 훌쩍 넘겼더라구. 창밖의 바다에선 서서히 동이 트고 말이야. 꼭 해 뜨는 거 보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금세 잠들고 말았어. 에이, 아쉽다.

**마지막 날,** 너와 헤어져야 하는 날. 웬지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린 것 같아서 아쉽기만 했어.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꼭 너 밥 먹여주고 싶었는데 야속하게도 오빠 무릎에 앉아서 밥을 먹은 정원이 너~. 그래도 잘 먹는 거 보니까 다행이다 싶더라구. 시간은 정말 빨리 가버려서 너랑 헤어지게 될 시간이 됐어. 솔직히 싫잖아. 안 나더라. 왜 시간은 이럴 때만 빨리 가는지. 공부 할 때나 빨리 가지 말아야. 미안한 마음만 들더라고. 3일 동안 좀 더 잘 해줄걸.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걸. 버스 안에 올라타



서 네 이름과 내 이름이 적혀있는 명찰을 보니까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짝이 되어서 기뻐고 뿌듯했어. 온갖 감정들이 뒤죽박죽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그래도 선명하게 떠오른 건 네 얼굴이

었어. 항상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너의 미소 띤 그 얼굴 말이야. 그리고 보니 작별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해. 미안하단 말 밖에 해줄 게 없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실 난 너를 만나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어렸을 적에 우리 반에 장애인이 있었거든. 그 애는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항상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놀림을 받았어. 나도 뭣도 모르고 친구들이 그러길래 그 친구를 놀렸어. 그 때 이후로 장애인은 다 그럴 것이라는 편견이 생겼나봐. 하지만 넌 내 틀에 박힌 편견을 깨어준 고마운 아이야. 너와의 즐거웠던 소중한 만남이 일시적이지 않도록 노력할게. 비록 내가 없더라도 널 사랑해 줄 사람이 많을 거라 믿고서 '늘사랑의집'에서 늘 사랑받으면서 예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하늘에 떠 있는 별에게 슬쩍 바래볼게.

정원아! 다시 널 만나게 되면, 그때도 널 처음 만났을 때처럼 꼭 안아줄게! 사랑해!



| 따뜻한 글모음 | 늘사랑의집



## ‘더불어 행복 하기’ 백의민족 다시 한번 뭉치게 하다!

유승균  
(강릉명륜고 2학년)

명륜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늘사랑의 집으로 봉사 캠프를 간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한 번 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어머니를 따라 여러 번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 봉사활동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아이들과 놀거나 함께 지낸 적은 없었다. 봉사활동에 가면 그저 청소하거나 그들이 하는 일을 약간 도와 줄 뿐 함께 어울리지 않고 나 혼자 떨어져서 일만 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이번 캠프에 신청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에서다. 7월 28일 강릉 시청 앞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늘사랑의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이런 캠프는 처음이라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하였고, 방학이라 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운 마음도 함께 있었다.

그 곳에 도착해서 2박 3일간의 계획을 듣고 조원을 서로 확인한 뒤 자신이 담당할 파

트너를 만났다. 나의 파트너는 ‘윤석연’이라는 형이었다. 20대로 보이던 이 형은 언뜻 보기엔 건강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였다. 그런데 친구들에게서 들어본 결과 제일 돌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는 ‘큰일 났다’란 생각이 들었다. 들던 대로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가려고 했고 나는 형을 막느라 안간힘을 썼다. 힘도 워낙 세서 내가 끌려가는 바람에 주위 친구들이 도와주어야 했다. 그렇게 첫날은 만나기만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다음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잠들었다.

다음 날은 먼저 아침식사를 도왔다. 아침은 워낙 잘 먹는지라 도울 필요는 없었고 형이 흘린 음식을 청소하고 상을 닦기만 하였다. 그리고 감자를 캐러 나갔다. 형이 워낙 힘이 센지라 무거운 일을 선생님들이 형한테 시켜 나는 형을 도와 감자 나르는 일을 하기도 하고 내가 호미로 흙 파는 일을 하면 형이 땅에서 나오는 감자를 주워서 바구니 안에 넣었다. 우리는 캐낸 감자로 감자전을 해 먹었다. 서로 도우며 힘들게 캔 감자인 만큼 더 맛이 좋았다. 그 다음엔 바다에 갔다. 선생님들 말씀으론 석연이 형은 물에서 노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선생님들이 맡겠다고 하시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오라고 하셨다. 솔직히 파트너인 형과 노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어서인지 놀면서도 형이 걱정되어 가끔씩 돌아보기도 했는데 다행히 형은 한 곳에서만 계속해서 놀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바다에서 돌아온 후 강당에 갔다. 강당에서 온 플룻 연주단이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이 계속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맨 처음엔 그냥 볼일 보러 가는 줄 알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30~40분이 지나도 형이 나오지 않아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가봤더니 세면대에서 씻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다에서 돌아온 것이 아쉬운 나머지 세면대에서 물로 장난을 친 것이었다. 그런 행동이 너무 어린애처럼 보였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란 생각에 나오라고 하기도 뭐해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다. 결국 나와 형은 플룻 연주도 못 듣고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다. 그 날 까지



| 따뜻한 글모음 | 늘사랑의집



막으랴도 좀 친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것 같았다. 파트너와 함께 하는 시간에는 화장실에만 있어서 게임에 참가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다.

**마지막 날은** 파트너와 만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조끼리 사진을 찍고 헤어지게 되었다. 늘사랑의집을 떠나면서 형과 많이 친해지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여기에 온 이유가 장애인들과 친해지고 또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였는데 그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장애인들과 함께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바뀔 수 있었지만 친해지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돌아오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생각해 보았다. 정신적으로는 보통사람과 다르지 않은데도 신체적 장애라는 이유로 취업시켜 주지 않고 소외받는 일들을 생각해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차별은 너무도 가까운 데에 있다. 예를 들어 경포대나 휴게소를 보면 화장실이 남·녀 따로 있는데 반해 장애인들의 화장실은 남·녀 같이 있고 일반 화장실과도 동떨어져 있다. 예전에는 이런 일에 관심이 가지 않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캠프를 참여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느낀 것은 그들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며 인간으로서 존중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불편함을 도와주며 더불어 살아간다면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루 빨리 없애도록 노력하여 장애인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보고 싶은 늘사랑의집 식구들에게

하지연  
(상일고 1학년)

**안녕하세요,** 예지예요. 올해도 캠프 소감문 써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캠프가 끝난 다음날부터 보충수업 들어가느라 바빠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네요. 어제 사진 CD가 온 걸 보고서야 생각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역시 글 솜씨 없는 제게 소감문이란 결국 두서없는 편지일 뿐인걸까요. 200장이 넘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무슨 말이란 전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소감문을 쓴답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생각만 많아 머리만 복잡하고 글은 안 써져서 또 다시 편지를 택한 저랍니다. 와! 그리고 보니 그 동안 늘사랑의집과 2박 3일씩 3번을 함께 했네요. 이 곳과의 인연을 만들어준 작년 여름 교보캠프, 늘사랑의집 아이들 보겠다고 버르고 별러 간 지난겨울 그리고 이번 여름 교보 캠프까지 말이에요. 사실 이번 캠프는 가기로 결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작년과 달리 소집이 원주에서 있다는 이야기에 엄마께서 절 말리셨거든요. 원주까지 갈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늘사랑의집은 꼭 가야되겠다고 시설을 두 군데나 갈 시간적 여유는 없어서 결국 엄마를 설득했어요. 늘사랑의집과 맺은 인연 끊고 싶지 않다고, 시의

| 따뜻한 글모음 | 늘사랑의집



버스 타고 원주까지 가면 된다고요. 걱정스러워하시는 눈치였지만 다행히 승낙해주셔서 저와 혜인이는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늘사랑의집에** 도착하자마자 식당으로 향한 저희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1인당 닭 한 마리 삼계탕이라니요! 그 정성에 감동받아서 잠시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지요. 프로그램 진행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 모자와 유니폼 위에 놓인 명찰들이 있었어요. 제 명찰을 보니 와! 제 짝이 수라인 거예요. 겨울에 왔을 때 저를 유난히 잘 따르던 수라. 많이 보고 싶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OT를 마치고 분수광장에서 짝 만나기! 휠체어를 타고 나온 수라. 여전히 예쁜 수라에게 겨울에 왔던 예지언니라고 소개를 했더니 기억난다는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수라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천연염색에 쓸 꽃이랑 잎을 따는데 둘 다 이야기 하는 데 정신 팔려서 천연염색

은 관심 밖.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해주신 잎들로 어설프게나마 천연염색을 끝내고 생활관으로 가서 저녁 먹을 준비! 수라가 워낙 순한 데다 그날 기분이 좋은 상태여서 식사보조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아직 짝과 친해지지 못한 봉사자들도 많았는데 저는 수라가 좋아하는 반찬도 대충 알 정도니 어려울 것도 없었지요. 식사가 끝난 다음엔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는데 수라가 음악만 나오면 신이 나서 춤을 추는 바람에 웃느라 바빴던 시간이었어요. 수라 휠체어를 밀면서 게임에 참가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수라가 사탕 먹다가 얼굴에 밀가루 범벅이 되는 바람에 털어주면서 장난치던 것도 생생하네요. 레크리에이션을 마치고 별자리 본다고 프로그램 진행실에 자리를 잡는데 수라는 휠체어에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었던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수라가 없는 마지막 일정은 아쉽고 쓸쓸하게 끝났고 그렇게 캠프 첫날이 지나갔답니다.

**둘째 날 아침,** 식사보조를 하러 수선화반으로 가니 생긋 웃으며 반겨주는 수라. 아침 식사를 수월하게 끝내고 A조는 프로그램 진행실에서 솟대를 만들었어요. 감자 캐는 B조에 비하면 덜하긴 하지만 솟대 만들기도 수라가 함께 하기엔 조금 어려운 활동이었다

는 생각이 들어요. 솟대를 다 만들고 감자전이 배달되어 오자 분위기는 급반전! 감자탕 부침가루 말고 별다른 게 들어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다들 달려들어 먹느라 바쁜 거 있죠. 전 배가 별로 안 고팠기 때문에 맛만 보고 수라 먹여주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감자전이 사라졌어요. 점심식사를 하고난 뒤에는 원래 물놀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파도가 높은 관계로 취소되어 대신 박물관으로 향했어요. 휠체어 탄 수라와 함께 박물관을 도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경사로 같은 게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긴 했지만 하나 뿐인 엘리베이터도 너무 좁았고 여기저기 턱도 있고 바닥에 홈을 파놓아서 휠체어가 다니기엔 아주 불편한 곳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라의 위치에서 보니 전시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박물관을 편안하게 돌 수 있다 한들 전시물을 볼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모두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소리 높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구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좀 더 모두를 위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늘사랑의집에 돌아왔을 땐 바비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수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허리가 아파 수선화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바쁘게 혼자 짝 없이 앉아있는 외로움이라니. 다른 친구에게 고기를 챙겨주며 마음을 달랬지만 수라의 빈자리는 크기만 했어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한여름 밤의 꿈' 시간이 되었어요. 짝과 함께 손잡고 율동하는 시간인데 수선화반으로 수라를 보러가니 수라는 여전히 허리가 아파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짝이었던 부경이를 데리고 나갔죠. 촛불을 좋아하는 건 그대로인건지 신기한 듯 자꾸 촛불 앞으로 다가서는 부경이 때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어요. 그리고 촛불을 보며 했던 기도-제가 늘사랑의집에서 느낀 모든 것들을 세상 모두가 느꼈으면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날엔** 다른 봉사자들과 얘기하는 바람에 늦잠을 자버렸답니다. 깜짝 놀라서 허



| 따뜻한 글모음 | 늘사랑의집

집지점 아침식사를 마친 뒤 청소를 하고 퇴소식을 위해 프로그램 진행실로 모였죠. 추억이 담긴 천연염색 손수건과 솟대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있고 각 조마다 하나씩 주어진 전지 한 장. 예전 같았으면 짝에게만 잘 지내란 인사를 썼을 테지만 늘사랑의집 수선화반 친구들을 전부 다 알게 된 상태다 보니 수라에게만 인사를 쓸 순 없더라고요. 결국 친구와 나뉘서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럼에도 쓰지 못한 아이들에겐 그저 미안할 뿐이에요. 다음에 가서 좀 더 잘해줘야겠어요, 후후후. 조별로 기념사진을 찍고 수료증도 받고 마지막으로 짝에게 작별인사를 하러갔어요. 방학 때 잠깐 들렀다 떠나는 손님일 뿐이라서 미안해, 대학생 되면 좀 더 자주 올 수 있도록 해볼게. 마음 한쪽이 아려왔지만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나왔는데 버스에 타자마자 왜 눈물이 주룩 흐르고 마는 것인지요. 아직 모든 게 서툴러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듯한 기분 때문인가요. 아마 늘사랑의집에 계속 오다보면 기쁜 마음으로 와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날도 올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볼 거구요. 그렇게 늘사랑의집과의 행복한 2박 3일도 막을 내렸네요.

**늘사랑의집에** 갈 때마다 참 행복한 곳이라는 생각을 해요. 밝고 순수한 아이들, 언제나 한결같은 재활교사들 그리고 다른 봉사자들까지.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작년 캠프 때의 명문고 봉사부 학생들이나 겨울에 만난 미용봉사자 분들을 보면서는 '이들이 있어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구요. 저는 아직 훈훈한 봄바람이기엔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늘사랑의집에서 받아간 따뜻한 사랑을 모두 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오래오래 함께 할 거니까 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 더, 늘사랑의집에선 속스러워서 못했던 말이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갈 때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선생님 글

## 매년 성장하는 우리

늘사랑의집 김명섭

그냥 막연하게 작년에 캠프를 진행한 경험만을 내세우며 6월을 보내고 어느덧 7월을 맞이하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은 휴가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때 난 "캠프"에 대한 압박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나의 가장 큰 버림목이 되어 주었던 재활교사들이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캠프진행에 대하여 '가능할까'라는 불안감이나 의욕을 옥죄고 있었다. 이러한 나의 목마름을 뒤로 한채 날씨는 성큼성큼 다가왔다. 불행중 다행으로 손발이 맞은 직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부리 안전사고만 없이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프리어 캠프가 시작 되었다. 저녁과 새벽 사전회의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를 실시하면서 1차 캠프가 진행 되었다. 항상 부딪히는 문제지만 날씨의 불순으로 '바라기에서' "의 프로그램이 걸림돌이 되었다. 늦도록 진행된 회의 끝에 프로그램변경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박물관 탐방을 진행 하였다. 그 날 아이들의 애석해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다행히 2차는 하늘의 도움으로 계획대로 손조롭게 진행 되어 진행되는 나의 마음도 기쁨과 즐거움이 두 배나 되었다. 농장체험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휴과의 어우러짐에 행복해하던 몸짓들, 아이들이 직접 요리를 하여 서로를 먹여주고 챙겨주는 손짓들, 짝꿍 옆에서 2박3일간 함께하던 모습들, 작품완성을 위하여 서로를 지지해주는 행동에서 작년보다 더 나아진 "성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다. 2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내년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를 흥분하게 만들지 무척이나 궁금해진다. 무엇보다 장애, 비장애청소년들이 2박3일간 더불어 함께하면서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 나의 사고의 틀을 깨는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

| 따뜻한 글모음 | 애명복지촌



## 편견을 넘어서

김도연  
(대구남산고 2학년)

얼마 전 성황리에 끝난 베이징 올림픽은 수많은 스타들을 낳았다. 금메달과 국가의 영광, 그 감동의 드라마에서 어느 누구보다 감동을 주었던 스타는 펠 때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던 육상 스타 우사인 볼트도 5개의 신기록을 갈아 치웠던 역도의 장미란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예선에서 그쳤지만 의족을 달고 국가 대표로 출전해 세계 각국의 육상 선수들과 어깨를 겨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수 피스토리우스는 어느 금메달 리스트보다 세계 각국 올림픽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하지만 그가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그는 지금까지 선수로써 노력해왔던 것 보다 더 큰 역경을 겪어야 했다. 올림픽 출전권을 얻기 위해 의족을 달고 편견으로 가득 찬 국가에 소송을 걸고 싸워야 했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아직 수많은 편견으로 가득 차 서로를 재어보기에 바쁘다. 그리고 그 편견은 어떤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알기도 전에 사람들의 시선을 가로막곤 한다.

나 역시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의 구성원으로써 살아왔다. 성적, 성별, 첫인상 등의

편견에 의해 평가 받고 나 역시 그러한 편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해왔다. 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었고 상처를 받으면서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 인줄 알았다. 그리고 장애인 역시 나의 편견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어린 시절 나는 장애우 사촌언니가 있으면서 내 손을 잡으려는 언니의 손을 피하기도 했고 옆에 앉는 것도 꺼려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미술치료를 하시는 엄마의 제자 중 자폐증 아이들에게는 말 한마디 걸지 못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야 우연히 학교 교실 뒤 게시판에 붙어 있던 '교보더불어 행복하기 캠프' 공고를 보게 되었다. 내 스스로 캠프에 신청해 온 좋게 참가하게 되면서 나는 내가 장애우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왔다.

그들은 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나를 안아주고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내민 손을 잡은 나는 장애인도 일반인도 아닌 한 사람에 불과했다. 눈치럼 새하얗고 순수한, 깨끗한 마음의 그들 앞에서 나의 까만 마음은 움츠러들었다. 일상생활의 나에게 없는 조건 없고 티 없는 웃음을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함께하고 수많은 활동들을 함께 하게 되면서 나도 어느 때보다 순수해졌고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나의 존재가치를 찾았고 가슴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초등학생 때인가,** 한 창작동화를 읽은 적이 있다. 사람들의 가슴에 핀 꽃을 수거하는 천사들의 이야기였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썩은 검은 꽃을 피우고 있었고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눈부신 하얀 꽃을 피우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2박 3일 동안 함께한 장애우들은 가슴에 밝고 아름다운 하얀 꽃을 피우고 있을 것이다. 사촌 언니도, 육상선수 피스토리우스도, 엄마의 제자들도 역시 가슴에 누구보다 크고 밝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들만큼은 못 되더라도 가슴에 밝고 아름다운 꽃을 천사에게 자랑스레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내 나이만큼이나 높은 편견의 벽을 쌓아왔다. 편견의 벽이 무너진 지금이야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편견을 가진 나와 내가 애명복지촌에서 함께한 그들 중 누

| 따뜻한 글모음 | 애명복지촌

가 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바로 나였던 것이다.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준 그들. 내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준 그들. 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맑아지고 내일도 밝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만 같다. 내 가슴에도 이제는 하얀 꽃이 필 것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다 가고 이제 가을과 함께 추석이 다가온다. 이번 추석에 큰집에 가 사촌언니를 만나면 나는 그간 철없는 어린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한층 철든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본다. 먼저 손을 내밀어 내게 마음을 열어주었던 사촌 언니,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나는 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언니가 얼마나 티 없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이번 추석에는 내가 먼저 언니의 손을 잡을 생각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족 육상선수 피스토리우스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또다시 도전한다. 그의 사회적 편견을 넘으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온 몸으로 묻고 있다. 의족을 단 자신과, 편견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한 사람들 중 누가 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나도 이제는 그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저에게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는 법을 알려준 애명복지촌과 캠프에 참가하게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명복지촌에서 일하시는 복지사분들도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앞으로 저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김효준  
(대구남중 3학년)

**아무생각 없이**, 계획 없이 방학을 보내던 나. 방학이 일주일 다 되어가는 7월 30일 교보생명에서 주최하는 봉사캠프 날이 다가왔다. “효준아 일어나야지!” 평소엔 늦잠을 자게 해주시는 어머니께서 오늘은 다급하게 나를 깨우셨다. 달력을 보니 오늘이 바로 봉사캠프를 가는 날인 것이었다. 난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거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거기 계신 분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반쯤 덜 깬 얼굴로 버스를 타고 교보빌딩으로 갔다. 교보빌딩에 도착한 지 얼마 안돼서 애명복지촌으로 가는 차에 올라탔다. 기대감 반 두려움 반. 차에 몸을 맡긴 지 2시간 30분정도를 걸려서 애명복지촌에 도착했다. 내리는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고 낮선 눈으로 주위를 살펴 보았다. 내가 사는 곳에서는 보지 못한 풍경들이 날 반겨서 왠지 포근했고 좋은 느낌이 들었다. 집에 있었을 때의 느낌과 사뭇 달랐다. 안내해주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일단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은 후 처음으로 장애인분들을 만났다. 이러면 안됐지만 난 신기한 눈으로 그들을 보았고 약간의 공포심을 느꼈다. ‘저 분들이

| 따뜻한 글모음 | 애명복지촌

나한테 무슨 짓을 하면 어찌지?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생각을 했다.

**점심을** 먹고 입소식을 하는 체육관으로 갔다. 가서 조원들을 만났고 나의 짝꿍인 '이 승록' 씨를 만났다. 처음에 선생님들이 장애인들의 손을 잡으라고 했을 때는 웬지 거부감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짝꿍의 손을 잡았다. 손을 잡았지만 나의 어이없는 상상은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은 너무 따뜻했고 좋았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에 싸인 내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만난 조원들과 난 조 깃발을 만들었다. 또한 짝꿍의 이름표를 만들어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이 분을 처음 만난 거 맞아?'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분과 친해졌다. 특히 내 짝꿍의 순수한 웃음이 웬지 날 기분 좋게 만들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의 웃음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앞으로의 일을 잠시 잊게 해준 활력소인 것 같았다.



**첫째 날** 오후 일정이 모두 끝나고 저녁에 짝꿍 분과 천문대로 체험을 갔다. 짝꿍과 같이 우주 중력을 체험도 했고 우주선 안에서의 느낌도 체험했다. 늘 나만 생각하던 내가 내 짝꿍을 챙기다니..... 나 자신이 뿌듯했고 괜히 나 혼자 속으로 놀라워했다. 천문대의 체험을 모두 끝나고 피곤한 몸으로 짝꿍을 방에 데려다 드리고 숙소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했다. '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잖아! 내일 정말 기대되는 걸!' 이불 위에 누워서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에 잠기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오전 6시 30분경** 웬지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집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고 아침을 먹었다. 집이 아닌 곳에서 밥을 먹은 거치고는 정말 맛이 있었다. 아침식사를 다하고 나의 짝꿍 분과 재회를 했다. 웬지 짝꿍이 너무 반가웠고 지금 생각해보니 보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다시 만난 짝꿍과 난 천연비누 만들기와 도자기 만들기를 했다. 서로 협력하면서 열심히 천연비누를 만들었다. 하지만 도자기 만들기를 할 때는 기운이 다 되었는지 짝꿍 분의 도자기를 못 꾸며주었다. 그래도 승록씨는 인상 하나 찡그리지 않고 순수한 웃음으로 날 반겨주었다. 그의 순수한 웃음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성껏 못 그려준 게 정말 미안하

다는 생각이 든다.

**오전 일정을** 끝내고 점심으로 안동의 명물인 안동찜닭을 먹고 강으로 갔다. 그 곳에서 짝꿍과 같이 은어 잡기를 했다. 마음으로는 다른 조보다 많이 잡으려고 했지만 마음만 앞서서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다. 은어 잡기를 끝내고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 친구들과 같이 물놀이를 했다. 승록씨는 힘들어하셔서 쉬었는데 같이 물놀이를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물놀이 덕분에 전혀 몰랐던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숙소에서 몸을 씻고 난 뒤 짝꿍이랑 삼겹살 파티를 하러 운동장으로 갔다. 먹음직스러운 삼겹살을 먹으면서도 승록씨의 고기를 챙겨주는 걸 잊지 않았다. 이미 난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에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시점이 되니 짝꿍이 없다면 허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레크리에이션에 보일 장기자랑을 조원과 같이 준비하러 체육관으로 갔다. 준비하는 1시간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해하기만 했다. 결국 1시간동안 준비한 건 올챙이송에 따른 율동이었다. 짝꿍한테 이 율동을 가르쳐드리느라 진땀을 뺐다. 하지만 조금 따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웬지 뿌듯했다. 레크리에이션 준비를 끝내고 짝꿍의 손을 꼭 잡고 숙소 앞에 있는 작은 운동장으로 갔다.

각 조들끼리 준비한 장기자랑을 열심히 했다. 우리 조 순서였을 때 떨어져 잘 하지 못 한 것이 아쉬웠다. 결국 우리 차례일 때 난 장기자랑이 안돼서 막춤을 쳤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쪽팔리고 생각하기 싫다. 조별 장기자랑이 끝나고 개인 장기자랑을 하였다. 우리들은 부끄러워서 한 명도 나가지 못했지만 장애인들은 거침없이 나가서 장기자랑을 하였다. 이렇게 순수하게 자기의 표현을 거침없이 하는 장애인들이 내심 부러웠다. 마지막으로 캠프 파이어를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마지막 밤은 저물어갔다. 내일이면 헤어진다 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눈을 떠보니 싱그러운 아침이 나를 반겼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웬지 모르게 우울했



| 따뜻한 글모음 | 애명복지촌



다. 잠시 TV를 보는 동안에도 마음은 슬펐다. 예전에 TV를 봤을 때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지만 지금 이 시간동안에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10시까지 휴식을 취한 난 나의 짝꿍의 방을 방문하러 갔다. 내 짝꿍과 그 외에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숙소는 아주 소박하고 좋았다. 장애인들의 숙소를 구경한 다음 내가 만든 도자기를 짝꿍한테 드렸다. 만족스러워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비록 그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은 할 수 없었어도 우린 서로 말이 아닌 마음으로 대화했던 것 같다. 진정한 대화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짝꿍의 숙소를 방문하고 드디어 운명의 시간. 퇴소식을 하는 체육관으로 갔다. 이 순간 난 단 1초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소식을 진행하는 동안 난 지난 3일 동안의 기억들을 회상했다. 힘들고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지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았다. 이렇게 나만의 회상을 끝내고 퇴소식을 하기 전에 쓴 편지를 내 짝꿍 이승록씨한테 읽어드렸다. 그는 나의 마음을 아는지 웃기만 하셨다. 웬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게 모든 퇴소식은 끝났다.

사람의 정은 참으로 무서운 것 같다. 숙소에서 짐을 싸는 동안 온통 그의 생각만 났다. 집에 가는 건 뒷전이였다. 바닥에 접착제라도 발라놨는지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구로 향하는 차를 오른다는 게 정말 싫었다. 마지막으로 짝꿍과 인사를 나누고 차에 몸을 실었다. 차는 점점 애명복지촌과 멀어졌고 그동안 정들었던 분들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졌다. 차 안에서 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2박 3일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이 캠프는 날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든 것 같다. 그동안 장애인분들한테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이 계기로 그 편견을 썩그랑 깨버린 것 같다. 이런 기회를 주신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린다. 승록씨와의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하루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간의 담이 허물어졌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이러한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뜻 깊은 하루를 보내야겠다. 저랑 정 들었던 분들 모두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 보고싶은 현숙언니

정인혜  
(관천중 2학년)

7월26일. 혼자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다. “내일 안동 가잖아~무슨 옷 입고 가지?”, “내 짝지는 누굴까? 내 또래일까? 같은 방을 쓰는 건가?” 이렇게 난리법석 피우며 7월27일 12시30분 우리는 안동애명복지촌에 들어섰다. 수련관에서 점심을 먹고 오리엔테이션 후 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장애체험을 하였다. 시각장애 체험을 할 땐 앞에 커다란 전봇대가 있을 거 같아 무서웠고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밀 때는 팔이 너무 아팠다. 그렇게 장애체험을 마치고 내 짝지를 만나는 시간.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는지 모른다. 내 짝지는 윤현숙씨. 나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아주신다. “어니히(언니)언니(언니) 반가워 언니라고 부를게” 라시며 오셨다. 조별시간에 푸른 조 소속인 현숙언니와 명찰에 예쁜 꽃을 그렸다. 꽃 한 송이! 하지만 이 꽃은 특별하다. 왜냐면 현숙언니와 내가 같은 펜대를 잡고 정성껏 그려 나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친구들은 꽃도 우리랑 차원이 다르게 예쁘게 그렸지만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녁식사를 마치고 난 후 과학박물관에 가면서 아이들과 신나게 수다를 떨었다. 즐

| 따뜻한 글모음 | 애명복지촌



거운 대화 덕분에 빗속에서 별을 못 본다는 아쉬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별을 못 보게 되서 매우 아쉬웠지만 다른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나를 반겨주고 있었다. 특히 달에서의 중력체험이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인데 ‘정말 기술이 발달해서 달에 갈 수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란 생각과 몸이 뜨던 느낌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본 지구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밤일 때 불을 켜둔 모습을 하나의 지도로 만들어놨었는데 무척 인상 깊었다. 인공위성으로 본 지구모습을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프리카, 북한 등은 너무 어두웠다. 흐릿하게 형체만 보인데 반해 미국, 유럽, 남한 등은 반짝반짝 눈이 부실정도였다. 하지만 멀리서보면 섬처럼 북한은 어둡고 남한은 밝아서 씩씩했다. 하루빨리 섬처럼 보이는 빛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동에서의 하룻밤이 지나갔다.

**이틀날 아침.** 밥을 먹고 비누와 그릇을 만들었다. 예쁜 꽃 두 송이를 그리고 물레 체험도 해보았다. 손에 만져지는 흙의 느낌이 부드러웠다. 비누를 만들고 난 뒤 우리는 은어를 잡으러 가송으로 떠났다. 작은 강가를 호수처럼 막아놓은 그곳에서 정말 신나게 놀았다. 선생님이라 물장난도 치면서 현숙씨랑 물고기를 잡으려다 실패. 한 마리도 못 잡고 포기하였다. 물놀이를 마치고 행귀내려고 간이 천막에서 씻고 있었다. 할머니뻘 되시는 현숙언니께 물을 끼얹으며 씻겨드리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했다. 옷을 갈아입고 맛있는 비빔밥도 먹고 맷돌로 콩도 갈아 두부도 만들었다. ‘1000원으로 슈퍼에서 사면 바로 내 손에 들어오는 두부를 맷돌로 갈아서 만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생각하게끔 해주었다. 애명복지촌으로 돌아와 맛있는 삼겹살 파티~ 남남 짹짹. “현숙씨 맛있어요? 인희씨도 더 드릴까요?” 은어 잡는다고 힘 다 뺏다가 체력보충.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구름이 즐거워하는 우리들을 질투했는지 비를 한바탕 쏟아 붓는다. 다 먹고 난후 사진촬영도 하고 캠프파이어를 위해 운동장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건 눈부시도록 이쁜 촛불 길. 현숙씨랑 손 꼭 잡고 촛불들을 음미하며 자리에 앉았다. 각 조에서 준비한 장기자랑과 우리조대표로 우여곡절 끝에 나가서 열심히 춘 so hot이 좋은 반응이라 다행이었다. 나 혼자만 그렇게 느꼈던 건가? 그렇게

캠프파이어도 하고 다른 장애인분들과 게임도 하고 짝지를 바래다 준 후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마지막 날,** 아쉬움과 그리움을 가득 안고 짝지방에 갔다. 현숙언니는 날 반갑게 맞아 주셨다. “빨리 빨리 와~~”하시며 날 잡아 끌어 들어간 방. 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가지고 간 선물도 뜯어보았다. 예쁜 그릇과 비누, 비누 중엔 반쪽하트도 있었다. ‘그거 보고 나 있으면 안돼요~’ 라고 말하고 오는 건데 아쉽다. 벌써 나를 잊으신 건 아닌지. 다시 만나보고 싶다. 날 보면 반가워하실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닐까? 퇴소식과 시상식을 하고 우리는 집으로 가기 위한 차에 올랐다. 마중 나온 현숙씨는 나를 보자마자 언니 언니하시면서 꼭 안아주신다. 정말 그리울 꺼야. 해맑고 순수한 사람들,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고 따라준 사람들. 이런 분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 교보와 애명복지촌에 정말 감사하고 메일을 보고 나에게 권유해주신 엄마에게도 감사함을 느낀다.

**봉사시간** 점수를 떠나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은 무섭다, 모자란다, 불쌍하다’란 편견을 확 뒤집어놓은 캠프였다. 아직도 저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장애인들을 사랑하신다면 한번쯤 해볼 만한 아니 꼭 해보면 좋을 캠프다. 장애는 결코 불쌍한 것이 아니며 하나의 개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성공적인 2박3일을 지내고 온 게 될 것이다. 경험자인 내가 자신 있게 보장할 수 있다. 며칠 전에 배달되어온 CD 한 장. 잊고 있었던 세세한 부분까지도 기억나게 해준 반가운 우편물이었다. 마지막까지 배려해준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이글이 선택되어 내년에 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기를 고대 한다.

| 따뜻한 글모음 | 애명복지촌

# 선생님 글

## “2008 더불어 행복하기”를 마치고서

애명복지촌 강은숙

애명복지촌, 요양원 언덕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2008 더불어 행복하기”. 올해도 여전히 사전에 고심을 거쳐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었다. 캠프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만들고, 불이고. 모두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작년에도 그랬듯이 설렘 반 걱정 반으로 1차 캠프가 시작되었다. 직원들 모두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가 그리 부족한 것들이 많는지... 1차 캠프 때는 야외에서 진행된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난데없는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저녁일정 내내 흐리고, 캠프파이어 진행 중에도 비가 쏟아져 급하게 일정이 종료되었다. 2차 캠프 때는 1차에 무리가 따랐던 일정과 미리 비가 올 것도 준비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캠프를 진행할 때라 다 느끼는 것이지만 날씨만 좋아도 밤 이상을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치중되어 자칫 장애인들이 소외되거나, 장애인에게 치중되어 청소년들이 무효하지 않게 진행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지만 모두를 만족 시키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또 2차 보단 1차를 진행했던 것에 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애명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성적을 얻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

거제도애광원 | 따뜻한 글모음 |



## 가장 소중했던 시간

허순희  
(부산진여성 3학년)

나는 고3이다. 방학을 뜻 깊게 보내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교보생명의 더불어 행복하기를 알게 되었다. 참가신청을 하고 하루하루 들어오면서 참가자현황을 보았는데 점점 늘어가는 참가자들을 보며 내 마음은 초조해졌다. 정말 꼭 가고 싶었다. 다행히 이런 마음이 통한건지 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교보생명으로 출발하였다. 막상 가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2박3일 동안의 시간이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 걱정 반, 설렘 반으로 거제도애광원으로 출발하였다. 무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거제도애광원! 건물도 크고 시설도 꽤 좋아보였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깨끗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 '건물만 깨끗하면 다행이다. 숙소도 깨끗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겠지?' 지금 생각하면 나만 생각한 이기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부터 하는 모습을 보며 봉사활동을 하러 온 건지, 숙소에서 2박3일을 보내려고 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봉사활동보다 일정이

| 따뜻한 글모음 | 거제도애광원

기대되었다. 봉사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걸 얻고 깨달으려고 목표를 정하였는데 머리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뒤로한 채 점심을 먹었다. 점심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재료들도 거제도애광원에서 재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는 급식 같은 경우 위생적이지 못하고 재료들이 의심가곤 했는데 거제도애광원의 급식은 우리 집에서 먹는 밥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재료들을 쓰니까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밥을 먹고 강당으로 갔다. 일정을 소개하고 부원장님의 말씀도 듣고 거제도애광원을 한 바퀴 쪽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거제도애광원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좋으신 분들만 있고 정말 좋은 곳이라고. 풍경도 너무 예쁘고 특히 빨간 지붕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시설을 맘껏 구경하고 드디어 거제도애광원 친구들을 만났다. 만나기전에 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할까? 혹시 힘들진 않을까? 실수하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다.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 항상 청소만 했지 장애인 친구들과 만난 적이 없어 더 걱정이 되었다. 드디어 친구들을 만났다. 나는 4조였는데 4조에는 여자2명, 남자4명이였기에 장애인들도 여자2명, 남자4명이였다. 여자 친구들은 오미연언니와 연보라라는 친구들이였다. 보라는 너무 예뻐다. 짧은 머리에 큰 눈 이었는데 장애인들중에서 가장 예뻐던 것 같다. 미연언니는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와서 너무 기쁘고 고마웠다. 파트너를 정했는데 나는 보라와 파트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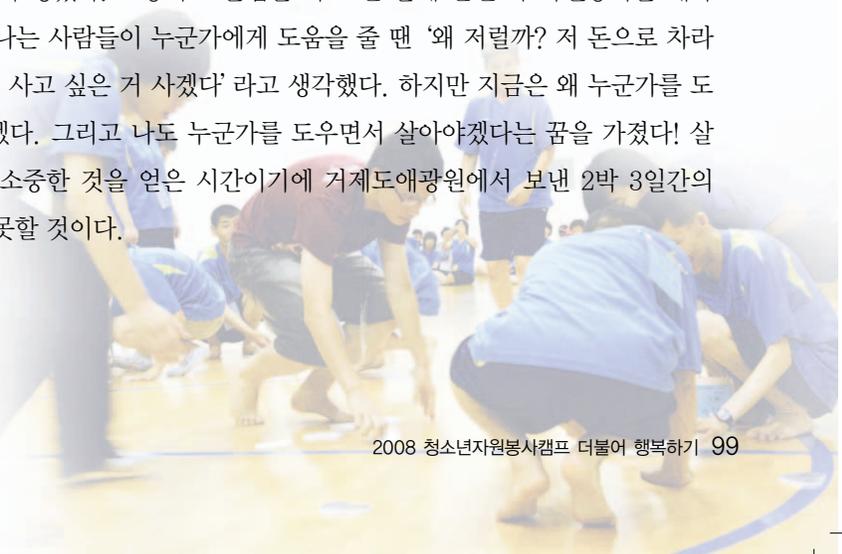
**둘째 날은** 구슬공예였다. 나는 보라와 함께 하고 싶어서 작업을 같이 하고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보라와 다 함께 했다. 나는 재미있었는데 보라는 재미가 없어 보여서 좀 아쉬웠다. 보라를 배려하지 않고 나만 구슬공예에 빠져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 미안했다. 구슬공예가 끝나고 가장 기억에 남는 해양체험~! 너무나 즐겁고 신났던 해양체험! 물을 무서워하지만 노는 것을 좋아하는 나. 보라를 튜브에 태우고 밀면서 놀았는데 너무 덥다보니 나도 모르게 보라에게 짜증을 냈다.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고 웃는 보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 보라는 더운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웃었는데 나는 그러지를 못했다. 그저 나만 들떠서 파트너는 쟁기지도 않고 놀았다는 걸 그 땐 알지 못했다.



아직 상대방을 배려하고 쟁기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은가보다. 보라에게 배워야할 점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더운 날씨에도 짜증 한번 안내고 싱글벙글 웃는 보라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렇게 물놀이가 끝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 바비큐파티를 하였다. 바람이 많이 불어 좀 힘들었던 식사였던 것 같다. 캠프의 마지막 밤. 세족식. 파트너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이었다. 보라의 발을 씻겨주고 보라도 나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렇게 마지막 밤은 지나갔다.

**캠프의 마지막 날.** 정든 애광원을 떠나는 날이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슬프고 두려웠다. 평소에 봉사활동을 할 시간이 없고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에 아쉬웠다.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 봐 두려웠다. 항상 새 학기가 되면 실망스러웠던 점을 고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목표를 잡지만 곧 작심삼일이 되버리는 것처럼 이번 캠프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던 것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모두 잊고 살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캠프를 참가한 날의 마음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캠프를 활동하면서 정말 장애인들에게 본받을 것도 많고 일반인들과 다를 게 없는 친구들이라고 느끼고 내가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기에 떠나는 게 아쉬웠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캠프기에 더 아쉬웠다. 1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아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 방학을 이렇게 소중하게 보내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깨달으려 했던 것보다 생각하지도 못한 더 소중한 것을 많이 배운 것 같다. 나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자원봉사는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꿈이 하나 더 생겼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한 달에 한번 꼭 자원봉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땐 '왜 저럴까? 저 돈으로 차라리 더 좋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겠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왜 누군가를 도우면서 사는지 알겠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는 꿈을 가졌다! 살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얻은 시간이기도 거제도애광원에서 보낸 2박 3일간의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 따뜻한 글모음 | 거제도애광원



## 다시가고 싶은 그곳

김지윤  
(대전중 3학년)

"**엄마 나 애광원 갈래요.**" 작년에 애광원 캠프에 참가했던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 버린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리하여 내 동생과 그의 친구들은 1차로, 나와 내 친구 은빈이는 2차로 신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고 싶다고 하여 신청하면 다 되지는 않는 법! 1차에서 내 동생 친구 중 1명과 2차에서 내가 떨어지게 되었다. 어떻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모색을 해보니, 은빈이 대신 내가 가는 방법밖엔 없었다. 은빈이에게 내가 대신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 흔쾌히 승낙을 하였다. 그리하여 은빈이와의 교체로 2차로 가게 된 나!! 은빈이의 몫까지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들뜬 마음으로 애광원으로 향하였다.



**애광원으로 향하는 당일,** 나는 설렘 반 그리고 애광원 친구들을 만난다는 들뜬 마음 반으로 약속장소인 교보생명 건물로 향하였다. 역시나 가서 보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괜히 간 거 아닐까? 그냥 가지 말걸 그랬나?'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나는 이내 애광원에 도착하여 애광원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동화되고 있었다.



**애광원** 친구들과 함께하며 만든 추억을 통해 얻은 점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아닐까 한다. 길가에서 지나가는 장애인들을 보면 동정의 눈빛을 먼저 보냈던 내가 이곳에 다녀온 이후 그들을 그저 장애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친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이상 꺼리지 않고 가까이 하게 된 것 같고 그들의 마음이라던지 표정, 감정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누군가 나에게 "중학교의 마지막 시절인 3학년 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무엇인가요?"하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거제도애광원에서 자원봉사한 시간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가장 기억에 남나요?"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쉽게 검게 물들어가는 눈을 가졌다면 그들, 애광원 친구들은 너무나도 맑고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눈을 가져서 이기심에 물든 나조차도 이들과 함께 투명하고 순수하게 동화되거든요. 그들은 날개 없는 천사이고 그들이 사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추억은 나에게 귀중하고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럼 그 날개 없는 천사들과 그들이 사는 천국에 다시 방문해 보고 싶습니까?" "네! 언제나요. 지금도 당장 달려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걸요."



| 따뜻한 글모음 | 거제도애광원

# 선생님 그리 자신을 변화시킨 도전

거제도애광원 이경미

해마다 덥고 지쳤던 7, 8월의 뜨거운 여름. 그러나 2008년에는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으로 여름을 보냈다. '더불어 행복하기' 청소년 자원봉사캠프에 함께 하게 된 것이다. 캠프를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 친구들처럼 마냥 들뜨기도 하였고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다. 2박 3일이라는 캠프동안 힘들고 지치기도 하였지만 청소년들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내 자신도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청소년들이 애광원에 도착하던 날. 무거운 날씨로 지쳐 보였으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캠프에 대한 기대감이 감출 수 없었던 것 같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함께 온 친구들과도 한마디 두 마디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낯설고 힘들었던 장애인 친구들에게도 용기 내어 인사하고 손도 꼭 잡은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날은 일정 동안 맑은 추위와 변화를 담아가기 날씨를 보았다. 하루가 질 무렵 말하듯의 별이 예뻐라며 한참이나 밖에 나와 별을 구경하던 몇몇의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난다. 학교가라 학원가라 과외하라 힘든 요즘 잠시나마 툭툭 러고 별을 보며 편안해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요즘 청소년들은 감성받기 싫어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환경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 것 같다. 충분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긍정적인 경험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도전들을 통하여 꿈을 이루며 성장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과 같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청소년들과 힘든 이웃에게 희망을 꿀꿀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 캠프 만족도 조사

2008년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8개 기관에서 총 19회에 걸쳐 청소년자원봉사 캠프 '더불어 행복하기'를 진행한 후 캠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다음은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설문 응답을 SPSS 10.0 프로그램을 활용,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 1. 성별 및 학년별 비율

●●● 분석의 대상이 된 설문 응답자는 실제 참석인원 419명 기준의 98.1%인 411명이다. 이 중 남학생은 전체의 47.9%(197명), 여학생은 52.1%(214명)이고, 중학생은 전체의 69%, 고등학생은 31%이다.

###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봉사 참여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내 용	매우 긍정적	약간 긍정적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	합 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33.3%	60.3%	3.2%	0.7%	100%
사회봉사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33.1%	61.1%	4.6%	0.5%	100%

●●● 프로그램 참여 후 장애 및 사회봉사 참여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해 묻는 설문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포함 전체의 93%가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여 높은 긍정성을 나타내었다.

### 3.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관적 느낌

내 용	매우 긍정적	약간 긍정적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	합 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52.6%	44.5%	2.4%	0.5%	100%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7.5%	60.1%	10.5%	1.7%	100%
지역사회 및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었다	18.2%	58.6%	20.4%	2.8%	100%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2.1%	55.7%	9.7%	2.4%	100%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19.2%	47.9%	28.2%	4.7%	100%

●●● 프로그램에 참여한 느낌에 대한 문항은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경험, 성장, 문제해결 참여, 자신의 필요성 인식, 지식습득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자주 활용하는 문항요소이다. 전체적으로 긍정적 응답의 경향이나 새로운 경험이라는 측면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은 반면 새로운 지식의 습득, 문제해결참여와 같은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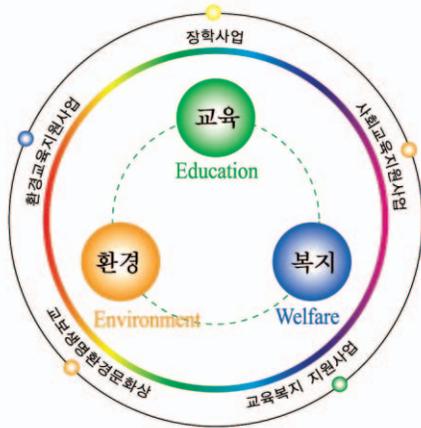
### 4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와 친구에 대한 권유 의사

●●● 프로그램에 재참여하겠다는 의사는 90.0%, 친구에게 참여를 권유하겠다는 의사는 90.5%의 높은 응답을 나타내어 캠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Kyobo Foundation for Education & Culture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은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에 따라 ‘국민교육진흥’과 ‘인류문화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7년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출연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익추구, 창조와 도전, 투명한 운영을 핵심가치로 하여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배움의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는 사회, 더불어함께 희망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 | 사업개요 |



## | 주요사업 |

- 장학사업
- 사회교육지원사업
- 교육복지지원사업
- 환경교육지원사업
- 교보생명환경문화상 시상